

지금,
인권하고 계세요?

국가가 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 사람 스무살, 그들의 폭력과 싸우며
우리는 자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지키면서 지은 죄,
단 한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권하는 다산인권센터의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www.rights.or.kr



그 사람 스무 살, 인권을 돌린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그 사람 스무 살,
인권하는
벗바리

그 사람 스무 살,
인권하는
벗바리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다산 인권센터
Dasan Human Rights Center

다산 인권센터

그 사람
스모 사람,
인권을
주겠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그 사람
스모 사람,
인권을
주겠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나에게 다산이란

첫 사랑

입니다

그 사람
스무 살,
1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는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획하고, 다산인권센터 현/전 활동가들과, 벃바리들이 글을 썼습니다. 성공회 사제이자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장이신 김대술님이 멋진 시로 20주년 백서를 빛내주셨습니다. 박진의 지인 이종필님이 멋진 스케치로, 유승하님이 만화로 도움 주셨습니다. 사진은 다산활동가들과 박김형준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주년 백서를 위해 최성규, 육성철, 정미현 벃바리님이 밤샘직업으로 함께했습니다. 'paper'가 디자인 및 편집해주셨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신념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번지이고, 전화는 (031)213-2105, 팩스는 (031)215-4395, E-MAIL은 humandasari@gmail.com, 홈페이지는 http://humandasan2.tistory.com/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후원계좌는 신한은행 110-062-448424 예금주 박진입니다.

* 이 책은 20주년 기념 백서로 무료배포이고, 필요한 단체, 혹은 누구에게나 배포 가능하니 필요하신 곳은 연락 주세요^^

목 차

2 여는 글

그곳에 다산이 있었다.

16 삼성과 맞짱 - 삼성, 일류가 되지 못한 노동권

20 경찰폭력과 자유권 - 방패와 법전을 상대로 싸움을 걸다

24 학생인권 - 교육을 넘었다. 이제 불륜을 높여라

28 노동인권 - 노동인권은 다산의 근거이자 뿌리

30 수원촛불 - 촛불에 데고, 촛불로 타오른 다산

32 미니 인터뷰 1: 띠라 - 너의 삶을 응원하며 "좋아요", 100개를~

다산, 다산 사람들

34 20주년 설문조사 - 키워드는 인권향상과 참여

36 다산을 지키온 사람들 - 스무 살 다산, 인물열전

40 그때 그 자리 - 1992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42 그 사람 스무 살 20주년 홀커밍데이 - 함께가요 우리!

45 나에게 다산은 ○○○다 - 나에게 다산은 '초등학교'다

46 미니 인터뷰 2: 허기저 - 묵묵한 일꾼, 다정한 아빠 허기저

47 다산인권센터 보금자리 - 사람 냄새나는 빨간 벽돌집

48 기획 대담 - '인권에는 양보가 없는가?' 다산인권센터의 과거를 묻다.

52 가상 토크 - 미리보는 2032년

56 미니 인터뷰 3: 메달 - 잠옷토크?

- 58 인권의 대전환, 지역 이슈를 전국 이슈로
- 62 이야기 마당 하나, 우리가 꿈꾸는 인권운동의 미래
- 64 이야기 마당 둘, 노동과 인권의 기억할만한 마주침
- 66 이야기 마당 셋, 인권 운동과 지역 운동이 만났을 때

- 68 인권교육 - 인권교육, 바람이 되다
- 70 새로운 인권운동의 의제 - 새로운 인권운동,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 73 SJM투쟁 - 노동자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SJM 투쟁

- 74 미니 인터뷰 4: 박진 - <두개의 문> 주연배우 박진의 아주 특별한 프로필

- 76 현장 르포 대추리 그 후 - 대추리, 대추리 사람들
- 80 만화 - 오년의 추억
- 82 미디어 '인파속으로' - 아날로그의 꿈, '인파속으로'
- 84 출간소식 - 노동자 눈에 비친 세상이야기,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
- 85 출간소식 - 가슴저미는 김장이야기, '사람꽃을 만나다'
- 86 인권영화제 - 부활을 꿈꾸는 전설의 수원인권영화제
- 90 밖에서 안으로 부치는 편지 - 스무 살 청춘, 당신들을 닮고 싶습니다
- 92 안에서 밖으로 부치는 편지 - 스무살, 다시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 94 달는 글 - 서른 넷, 시작

- 96 편집후기



'다산 인권' 20주년에 부쳐

높아,
 달은 떠있고
 빛나,
 별은 어둔 밤 비추는데
 나무는 말한다
 사람아, 외롭고 그리운 사람아
 너 하늘의 권리에 스스로 답하라고

'다산 인권'
 20년 한결같이
 우주에 귀 열었던 날들
 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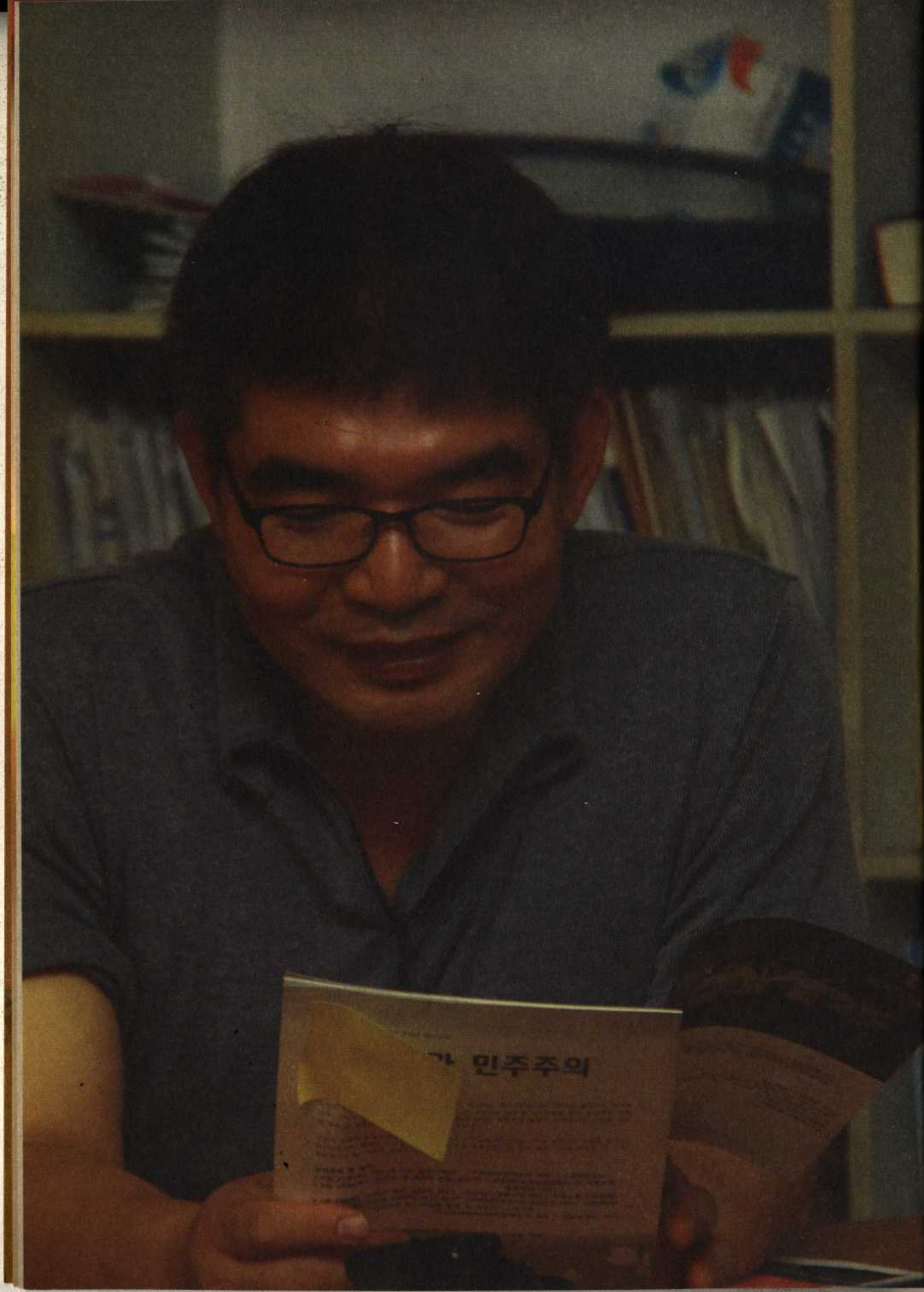
독선과 아집의 창살 부수고
 날아오르는 자유를 선물하라
 거친 광야 말 달려
 숨가빠 달려온 세월
 아름다운 이마 땀방울 솟아오르고
 심장은 젊은피 약동 하는구나

온 몸으로
 잠든 대지를 일깨우는
 아! '다산 인권' 이어

김대술 2012.10.4

김대술 신부는 성공회 사제이며 수원다시서기센터 센터장 입니다.

그 사람
스무살
1



그 사람으로 살아, **다산**

1992.

- 8월26일 김철준·김동균 합동변호사사무실 내 인권상담실로 창립
- 노동문제 상담 활동
- 노동사안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활동
- 노동조합 노동법 교육활동

1996.

- 인권상담실에서 인권상담소로 전환
- 사회복지(사회복지권리)사업으로 활동 확대
- 아파트공동체 운동 시작
- 제1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제1대 소장 김철준변호사, 허선 상담실장, 송원찬 간사 활동.

1997.

- 아파트시민학교 개최
- 사회복지 대학 개최
-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
- 제2대 소장 노정희변호사, 허선 상담실장, 송원찬 사무국장, 박진 간사

1998.

- 인권일반의 사업으로 활동 확장
- 인권교육활동 시작
-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 참여
- 사회복지대학 개최
- 노인주간활동
- 제3회 인권영화제 개최
- 경기방송참여위원회 참여
- 제3대 소장 김철준변호사

1999.

- 인권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인권운동단체로의 전환 모색
- 제1회 인권평화학교 개최
- 경기복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청소년 학교밖문화제' 개최
- 제4회 인권영화제 개최
- 제4대 소장 김철준변호사, 송원찬 사무국장, 박진 정책실장, 송주현 상담부장

2000.

- 다산인권센터로 단체명 변경
- 자유권·사회권 등 구체적인 인권영역으로 활동 확장
- 청소년 인권교육 활동
- 주간 「다산인권」 팻스신문 발행
-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위원 참여
- 아셈 2000 민간포럼 인권분과 참여
- 국가보안법폐지 명동성당 단식농성 참여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제4대 소장 어운철변호사

2001.

- 청소년인권캠프, 모의법정 대분공모사업 등으로 청소년인권 활동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경찰인권침해 캠페인
-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위원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연대 활동
- 제5대 소장 송원찬

2002.

- 직제를 폐지하고 수평적 상임활동가 체계로 전환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월례 인권포럼 개최
- 아동노동철폐반대 월드캠페인 활동
- 수원지역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및 청소년인권성매매본 공모사업 실시
- 고 심미선, 신호순 미군장갑차단거부운동 지원(연중 수원 촛불집회진행)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제1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 회원 소식지 「몸살」 발행
- 네덜란드인 마리아 인턴활동
- 송원찬, 박진, 송주현, 노영단, 정성웅 공동소장 체제

2003.

-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 전국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모의법정대분공모사업 추진
- 제8회 인권영화제 개최
- 한동련합법학 경기대학원 활동 및 아주대 지주대로 소외집회 진행
- 수원법무경찰서 이경자실사간 재응 활동
- 경제자유구역저지 경기대학과 및 인근대학 경제자유구역저지대응팀 구성
-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주거파병반대 인권단체 공동대응 활동
- 네이스반대 단식농성 활동
- 수원발전영화연대 활동
- 제2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 송원찬, 박진, 노영단, 정성웅 공동소장 체제

2004.

- 삼성노동자항쟁 봉쇄와 노동기본권탄압반대 경기학대단 활동
- 국가보안법폐지성가연대 활동
- 청소년모의법정대분공모사업 진행
- 제9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고 김현일 추모위 이라크파병반대 시국선명운동 및 촛불집회
- 전남민중재단 활동 중 발전영화연대 활동
- 한원CC경기브스쿨 노동기본권탄압 및 이라크 노동탄압 대응
- 인권노동조합연대인대응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전 참여
- 제3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집회방해도 모자라
폭력누명까지..
수원남부경찰서
규탄한다!**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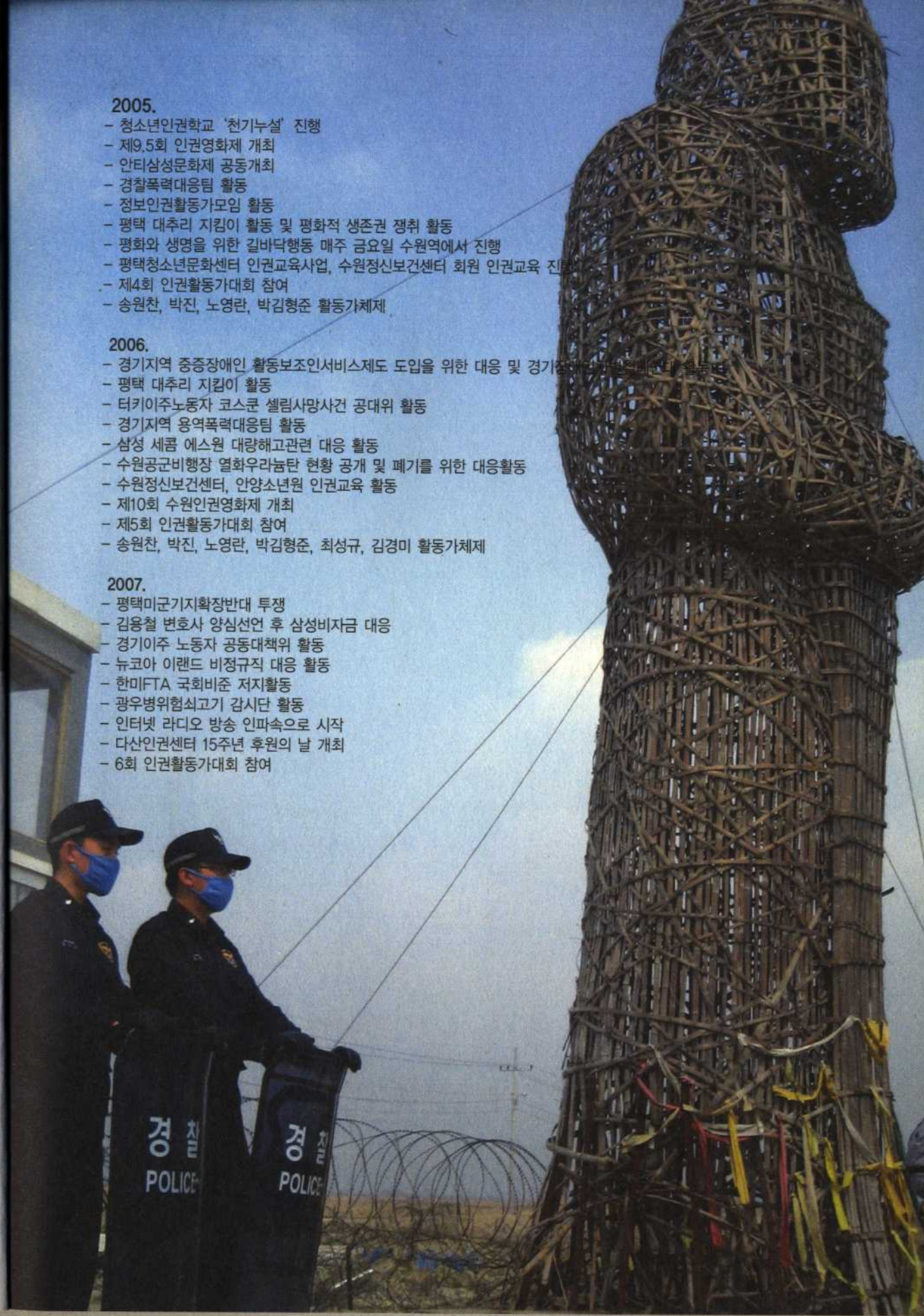
- 청소년인권학교 '천기누설' 진행
- 제9.5회 인권영화제 개최
- 안티삼성문화제 공동개최
- 경찰폭력대응팀 활동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
- 평택 대추리 지킴이 활동 및 평화적 생존권 쟁취 활동
- 평화와 생명을 위한 길바닥행동 매주 금요일 수원역에서 진행
- 평택청소년문화센터 인권교육사업, 수원정신보건센터 회원 인권교육 진행
- 제4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 송원찬, 박진, 노영란, 박김형준 활동가체제

2006.

- 경기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 및 경기장애인활동보조인대응팀
- 평택 대추리 지킴이 활동
- 터키이주노동자 코스쿤 셸림사망사건 공대위 활동
- 경기지역 용역폭력대응팀 활동
- 삼성 세콤 에스원 대량해고관련 대응 활동
- 수원공군비행장 열화우라늄탄 현황 공개 및 폐기를 위한 대응활동
- 수원정신보건센터,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활동
-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제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 송원찬, 박진, 노영란, 박김형준, 최성규, 김경미 활동가체제

2007.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투쟁
-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후 삼성비자금 대응
- 경기이주 노동자 공동대책위 활동
- 뉴코아 이랜드 비정규직 대응 활동
-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활동
- 광우병위험쇠고기 감시단 활동
- 인터넷 라디오 방송 인파속으로 시작
- 다산인권센터 15주년 후원의 날 개최
- 6회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2008.

- 다산인권센터 매교동으로 사무실 이사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활동
- 운하반대 여주 남한강 기행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활동
- 수원 반딧불 인권 영화제 개최
- 인권과 함께 떠나는 가을 라디오 캠프
- 제1회 인권캠프 참여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여
- 매주 수요일 수원촛불 수원시민대책위 활동
-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경기지역교사 직무연수(인권교육)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감시단 활동

2009.

- 2009. 01 웅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활동
- 2009. 03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
- 2009. 03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 지원활동(나중에는 반올림 활동으로 전환)
- 2009. 03 다산인권센터 라디오방송 인파속으로 2주년 공개방송
- 2009. 03 일제고사반대 공동행동
- 2009. 04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만들기 심화워크숍
- 2009. 05 영광 성시송학 대안학교 인권캠프
- 2009. 05 수원촛불 1주년
- 2009. 06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 2009. 07 수원신동 철거민투쟁 지원 활동
- 2009. 06 폭력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활동(경기이주공대위)
- 2009. 09 4대강 반대 투쟁
- 2009. 09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자문위원회 활동)
- 2009. 09 주부인권강좌
- 2009. 10 용산참사 국민법정
- 2009. 10 임산부 심야 압수수색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하는 경기경찰청 규탄기자회견
- 2009. 11 지역운동포럼in수원
- 박진, 김경미, 김산 활동가체제

2010.

- 2010. 01 수원지역 인권교육 교사직무연수
- 2010. 02 회원강좌 수화교실
- 2010. 02. 오동석교수와 함께하는 헌법교실
- 2010. 03 kcc 수원공장의 석면건축물 철거에 대한 중단 활동
- 2010. 03 집시법 개악 반대 활동
- 2010. 04 정신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정있네 활동 "정신건강강의"
- 2010. 0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반올림" 활동(삼성 반도체 노동자 복지개선사업)
- 2010. 05 수원촛불 3주년
- 2010. 05 삼성 김용철변호사 특강
- 2010. 06 '시선을 넘어 희망의 페달로' 자전거 여행(정신장애인들과 함께)
- 2010. 07 4대강사업 중단 이포보 농성 지원
- 2010. 08. 금속노조 의무교육 강사단 훈련 교육활동
- 2010. 10 G-20 반대 활동
- 2010. 10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착화 활동
- 2010. 11 지역운동포럼in수원
- 2010. 11 수성고 폭력 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정세활동
- 박진, 김경미, 김산 활동가체제

2011.

- 2011. 02. H(human),E(education),A(atonomy),D(democracy) 활동시작
- 2011. 03. 인권아카데미
- 2011. 04. '지구의날 기념 착한행동 공모사업' 철회요구
- 2011. 0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자유토론회
- 2011. 04. 방사능쓰나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강연
- 2011. 05. 벚바리 여름 산행
- 2011. 05. 아주대청소노동자 지원활동
- 2011. 06. 희망버스
- 2011. 06. 반올림프로젝트
- 2011. 06. 울천고인권교육
- 2011. 07. 남양주 가운고등학교 무더기 자퇴강요 대책활동
- 2011. 07. 금속노동인권교재 발간
- 2011. 08. 경기지역 인권교육 교사직무연수
- 2011. 10. 경기지역 반빈곤워크샵
- 2011. 11. 한미FTA폐기 촛불
- 2011. 12. 지역운동포럼in수원
- 2011. 12. 경기희망김장
- 박진, 김경미, 안병주 활동가체제

2012.

- 2012. 02. 에버랜드 노동자 김주경 사망 대책위 활동
- 2012. 05. 노동인권강좌 진행
- 2012. 05. 전문계고 노동인권 교육활동
- 2012. 05. 전문계고 노동인권 교사 직무연수 교육활동
- 2012. 05. 장투사업장 노동자 인터뷰 집 '사람꽃을 만나다' 출간 참여
- 2012. 06. '사람꽃을 만나다' 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
- 2012. 06. 20주년 맞이 홈커밍데이
- 2012. 06-07. 20주년 기념 특별강좌 민주주의와 인권
- 2012. 07. 화성 필탄 공단 폭발사건 대책위 활동
- 2012. 08. 20주년 비전워크샵
- 2012. 08. SJM 용역폭력사건 지역대책위 활동
- 2012. 09.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공동주최





다산인문연구원

다산인문연구원
다산인문연구원

그곳에
다산이
있었어요

삼성, 일류가 되지 못한 노동권

박진



삼성에게 빅넷을 선사한다 퍼블릭 아이 어워드 세계 3위 부끄러운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 묻는다!

위치추적 피해자 강재민. 2005년 이었겠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다. 삼성SDI는 울산, 수원, 천안 공장 모두에서 노조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계열사였다. 그만큼 삼성그룹 차원의 노무관리가 촘촘한 곳이었다. 수원공장의 강재민씨는 소위 강성 노조원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 강직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노조활동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노조라면 끔찍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삼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노조활동보다 더 평범하지 않은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그를 친구로 등록하고 위치추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명한 삼성 휴대전화 위치추적, 유령의 친구찾기 사건이었다. 유령이 친구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노조활동을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강재민은 회유와 설득,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은 채 유일하게 남은 노조원이었다. 그에게 가해졌던 삼성의 처사는 야만적이었다.

우선 그간 해왔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동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에 홀로 떨어뜨렸다. 그와 같이 밥을 먹는 동료는 없었다. 인사관리자들의 노골적인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외로워하고 힘겨워했다. 노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던 그가 노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그러한 야만적인 처사 때문이었다. 그는 심하게 자존심을 다쳤다. 그런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라도 노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매일 아파트를 뛰고 뛰고 또 뛰었다. 묵묵하게 일하며 사랑했던 일터와 등 돌린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를 힘들게 했다. 회사를 그만둔 뒤 고깃집을 오픈한 그를 찾아 간 날, 오히려 얼굴이 편해 보였다. 노조를 포기했지만 그의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고깃집에는 삼성 관리자들이 들락거렸다는 후문이다. 꾸준한 관리, 무노조를 위한 성심,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심, 노동자 무권리를 지키려는 그들의 그런 원칙은 결국 삼성이 일류가 될 수 없는 증거다.

김갑수, 송수근의 해고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해고의 시간

이 길어진 이들에게 회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노조활동하다가 결국 해고되고 두 번이나 구속된 울산 송수근의 아내 박미경은 남편이 구속된 동안 남편이 하던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회사 정문을 지켰다. 송수근의 노조활동 이유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입사할 당시 회사는 머리가 귀를 덮으면 총무부장이 와서 직접 머리를 깎고, 사내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풍기문란이라면서 징계했다. 그래서 불만이 폭발해서 16일 동안 파업하자, 회사는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임금을 22% 올려주고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대신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위원 60여 명을 전원 상근시켜주었다고 한다. 사랑발림이 쏟아진 노사협의회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놀 수 있는 알짜배기 부서가 되었다. 양심있는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송수근은 노조 아니면 선택할 것이 없었다. 물론 그 이후 송수근도 유령의 친구 찾기 대상이었다.

삼성의 도시 수원이다. 가전제품

라인 하나가 빠질 때마다 지역경제가 휘청인다고 아우성인 곳이다. 그러나 누가 삼성의 풍요로움을 이뤄냈는지 주인공은 따로다. 마치 이견희의 재능처럼,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천재의 솜씨처럼 둔갑할 뿐이었다. 허울 좋은 삼성맨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이들은 잔혹하게 잘려나갔다. 노조를 꿈꾸는 이들은 색출대상이었고 관리대상이었다. 'MJ 사원'으로 분류되는 순간(문제 사원의 줄임말) 그들은 삼성맨이 아니라 불순분자에 불과했다.

노조는 없으나 복지는 최고라는 삼성. 삼성은 주택대부,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보험, 계열사 소유의 콘도 숙박비 할인, 스키장 이용이나 캐리비안 베이 이용 등 할인혜택, 또는 강도 높은 반복적 육체노동의 불만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들을 제공한다. 삼성은 "미리 알아서 조치를 해줌으로서 노동조합 결성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서"안간힘을 쓴다. 무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사탕을 던진다. 채찍 든 손을 가리기 위한 유인책은 고도로 치밀하다. 삼성은 사측 교육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조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로 규정한다. 삼성이 작성한 노동자 통제 매뉴얼에서 조차 '외부 불순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00 설립 기도 가능성'(김성환, 이정미, '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 백서 참조)처럼 '노조'라는 단어는 00으로 처리될뿐 입밖에 올리지도 않는다.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서 노동자, 노조라는 단어와 개념을 지우고 싶은 것이다.

'삼성 공화국'의 인권유린

삼성은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력과 사회지배 엘리트의 포섭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견제 받지도 위임 받지도 않은 권력은 '삼성 공화국'이라는 조어를 탄생시켰다. 삼성의 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견제나 평가 시정 등의 성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삼성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삼성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노동 기본권 탄압과 노조결성과정의 인권유린이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삼성의 능력이 법과 국가를 뛰어넘는 것은 전근대적 독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 법조인, 학자 등을 동원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고 지구적인 '무한경쟁' 분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능력의 전반적인 축소, 자본의 자유화, 탈규제, 노동자 무권리 상태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화재를 매개로 한 민간보험시장 확대 등 국내 의료시장 장악 시나리오를 보면 삼성이 비단 언론 통제나 정관계 유착, 노동자 권리 침해를 떠나 사회 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주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삼성의 '경쟁' 논리를 통한 노동자 통제와 내재적 규율, 전경련 등을 통해 다른 기업

들의 노동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반영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는 다산인권센터가 오랫동안 삼성의 노동권에 집중한 이유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노동권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주요한 역할을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사건으로 만났던 무수한 노동자들, 삼성 복실이 사건, 삼성코닝, 삼성 SDI, 하청업체 노동자들... 삼성 방식의 노무관리로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던 이마트 사건, 삼성에스원 사건. 그리고 반올림으로 이어진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건, 우울증으로 사망한 故 김주현 사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을 만났고 사건들을 겪었다. 제보가 있다고 해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제보이틀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기자회견 이후 어딘가로 사라지기도 했다. 무노조 정책이라는 배제의 경영이념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무수한 인권침해를 보며, 이보다 사악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삼성 방식의 노동권리 배제 방식은 지금, 한국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회유와 협박, 납치와 감금...

동지들에게 연대와 박수를

그렇게 매번 당하고 싶지만은 않았다. 인간의 꿈을 꾸었기에 외롭게 격리된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2005년, X파일, 위치추적 사건을 들고 안티삼성 문화제를 만들었다. 삼성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한 '삼성 바로 보기 문화제'였다. 같은 해 10월 24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순례를 떠나, 10월 2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돌아오는 먼 길도 떠났다. 그때 우리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류 공화국 삼성, 부패 공화국 삼성, 노동탄압 공화국 삼성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삼성바로보기의 주제는 '삼성, 똥거덩'이었고,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 해결을 위한 예술

인 대책위원회(이하 구본주대책위)' 등의 다양한 이들과 함께 난장을 만들어 냈다.

지금도 우리는 해고자들을 만난다. 삼성전자에서 해고된 박종태 대리, 삼성노조 깃발을 올리자마자 해고된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 그들은 오늘도 싸우고 있다. 삼성 스마트 TV를 시청하고 갤럭시폰으로 통화하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소비 혈연으로 푹푹 뭉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묻는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끊임없이 소모품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것처럼 오래되고 수고로운 투쟁에, 다산인권센터는 지지하지 않고 함께 할 생각이다. 적이 강할수록 진실과 정의는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삼성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박수와 위로를 보낸다.

박진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방패와 법전을 상대로 싸움을 걸다

박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문 시위꾼'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촛불정국과 용산참사를 관통하면서 시민들의 저항에 몸살을 앓던 정부가 발명해냈다. 그와 유사한 언어로 외부세력, 빨갱이, 좌빨용공, 그리고 최근에는 종북주의자가 있다. 신통방통한 말들이다. 이것만 갖다 붙이면 늘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 그들은 전문시위꾼이고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등식이 곧장 성립되어 버린다. 국민은 선량한 시민과 불온한 시민으로 이분화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선량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일망타진해도 상관없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반대를 위해 촛불집회를 했던 시민이 백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셈법은 터무니없다. 그러나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이런 바보놀음을 단어 몇 개에 소급했다.

예전에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소위 '난지도'에 버려졌다. 서울에서 잡히면 용인, 신갈 등, 지금은 아파트촌이지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버려졌다. 차비도 없이 터덜터덜 걷고,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무용담을 선배들로부터 들었다. 치사한 공권력이라고 욕은 했지만 그나마 나았던 과거다. 이제는 시위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던들, 최첨단 장비로 사진이 채증되면 사후에도 반드시 처벌된다.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법치주의에 그야말로 관용은 없다. 경찰의 무기는 점점 비싸지고 좋아지고 있다.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된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도로에 내려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한테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촘촘히 짜인 법과 장비로 시민들은 손쉽게 범법자가 된다. 법을 어기기 너무 쉬워진 시대.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고, 자신이 인간임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대. 저항하는 이들이 범법자 신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태어난 사연

인권운동이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을 향해 몽둥이를 드는 것도 모자라 법전까지 끼고 폭력을 휘두르는 공권력을 향해...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산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형사범죄자가 된 이들을 변론했다. 또 억울하게 갇힌 이들의 석방을 위해 활동했다. 범법법인 다산의 부설기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변론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터진 뒤 시민들은 다산인권센터에 SOS를 보냈다. 자유를 빼앗긴 이들의 박해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기본적 소임이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산 활동가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다.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인권단체들과 함께 경찰 감시 활동을 한 것이 첫 번째 실천이었다. 아셈 기간 동안 인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정당한 집회를 막고 방해하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이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경험은 현재의 공권력 감시 대응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산인권센터는 인권현장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3년 인권단체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국회 본관 기습점거에 들어갔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다른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조력자 신분에서 스스로 인권침해 당사자들로 구급된다. 인권옹호자들의 직접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2006년 대추리, 도두리 행정대집행 과정, 한미FTA 반대 집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이 있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불법에 대응하는 시위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집회시위의 권리를 홍보하고 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 권리 교육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집회 좀 하자>라는 대중적 만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지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정책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다산의 다양한 시도는 '야간집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밑거름이 되었고 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 활동도 커다란 축이다. 경찰폭력에 의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사건, 하중근 노동자 사망 사건, 대추리 인권침해 진상조사, 2007년 뉴코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인권침해 진상조사, 용산참사 진상조사, 쌍용자동차 진상조사 등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용철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를 점거했던 일이다. 2005년 농민대회에서 경찰들에 의해 맞아 죽은 농민들. 그들을 죽인 자는 입을 다물었다. 사전답사까지 치밀하게 마친 뒤, 오전 11시 50분경 인권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4명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국민을 때려죽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우리는 하룻밤을 보내고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야 했다. 우리가 점거한 건물은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치안 행정의 최고 이념으로 인권을 앞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밖으로 끌려나온 우리는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은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아, 대추리...

두 번째 떠오르는, 큰 사건은 공권력에 맞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했던 대추리 투쟁이다. 한동안 다산 활동가들은 '대추리 병'에 걸려 있었다. 바다를 막고 간척한 땅을 옥토로 만든 농민들의 땅. 미군기지에 수용되어 두 번이나 국가에 땅을 빼앗긴 억울한 이들의 땅. 미군기지에 인접해 있어 끊임없이 울리던 헬리콥터 소리는 그곳의 일상이었다. 더 이상 쫓겨날 수 없다고 절규하는 그들의 곁에 있고 싶어, 대추리에서 몇 달을 살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던 날, 인권활동가들과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 그날 대추초등학교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정문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집행을 저지했던 기억, 포크레인과 레미콘 바닥으로 기어 들어갔던 기억, 빈집 철거를 막기 위해 지붕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던 기억, 그럼에도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대추초등학교, 그리고 마지막 촛불집회, 그곳에서 우리는 국가의 폭력을 온몸으로 겪었고 아파했다. 아직도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댓가를 치렀다. 이렇게 다산인권센터의 저항은 방패와 법전을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허준영, 어청수, 김석기, 조현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될 뻔했던 이들의 이름이 주루룩 떠오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들, 과잉진압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부당한 권력의 앞줄에서 시민의 자유를 몽둥이질 한 자들의 이름이다. 이들과의 싸움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직도 경찰 방패 앞에 설 때 두근거리는 내 심장소리를 듣는다. 공권력의 뜻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우월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정점에 용산참사가 있었다.

용산참사,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던 한 건물이 불에 타올랐다. 그리고 전소된 건물에서 6구의 시신이 내려왔다. 5명은 철거민이었고 1명은 경찰이었다. 사건은 한동안 정치쟁점이 되었다. 국회가 소집되었고, 화재 원인에 대한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까지 5명의 철거민에 대한 장례식은 치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구속된 사람의 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2012년 10월 현재도 감옥에 갇힌 이들은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참사 현장에 부리나케 올라갔다.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폭력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던 때,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 죽을 텐데...' 했던 우리가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올라간 길로 두 달 넘게 진상조사 활동을 하느라 수원에 내려올 수 없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국가폭력이었다.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다 살릴 수 있었던, 그날의 일들을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영화 <두개의 문>에서 말한대로 "쌍용에서 유사하게 진압하고 경찰이 성공적인 진압이었다고 자축했던 건 사람이 안 죽어서다. 야만의 정도가 계속 강해지는 거다. 용산을 딛고서 이 국민이 여기까지 참아주는 구나, 라는 걸 본 거다. 그게 정말 몹쓸 교훈이 돼버린 것이다." 야만의 교훈은 그렇게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

대추리 투쟁을 하면서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김지태 이장이 석방되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조사나 판결도 받고 싶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찰들이 구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었다. 저항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다산인권센터는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소환장과 벌금 통지서를 받고 있다. 활동가들에게 쌓이는 이러한 통지표는 무겁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이 순간, 이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딱지들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방패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생각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되어 울고 있는 사람을 혹시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까 하는 두려움 뿐, 인권에는 양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진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교문을 넘었다, 이제 볼륨을 높여라.

난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지만, 다산인권센터의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 또한 저 한 문장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멈춰버린 인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권, 이 사회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되고 여전히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거쳐 사회로 나간다. 저마다의 기억과 경험이 다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것은 중요한 공통점이다. 억압과 폭력으로 물든 공간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시들어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사회를 만들어나간다. 그래서 여전히 되묻는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교육과 이 사회는, 어떻게 인권을 담을 수 있을까.

학교를 뒤집어라! “스쿨 어택”

어느 지역이야 안 그렇겠냐마는, 수원은 경기도에서도 “뽕센”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몇몇 학교의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였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망포고등학교(2008년 3월 개교)에서 한 학급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퇴학’ 시킨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라며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고, 생활태도 불량, 복장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이 쌓인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 보내거나 내쫓았다.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행동에 점수를 매겨, 이를 통계 내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2010년 10월 5일 공포)에 의하여 학교와 교사들의 체벌이 금지되자,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떠오른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망포고 사건이 일어난 2009년 당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애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벌점 제도는 학생들의 생활 태도 등에 점수를 매겨, ‘문제아’로 낙인찍거나 학교에서 아예 퇴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아주 몹쓸 제도로 손꼽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체벌이 손으로 때린다면, 상벌점제는 벌점으로 때리는 또 다른 체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벌점제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은 심각하다. 심지어 당시에는 신체적 체벌도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니, 운이 없는 학생은 얻어맞고 벌점까지 받아야 했다.

망포고 사건을 맞닥뜨리며, 다산인권센터는 지역의 학부모·교육단체와 함께 “수원시 고교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학생인권연대(2009)”를 꾸렸다. 그리고 이후 학생인권연대는 망포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가 제보된 몇몇 학교로 직접 달려가 지속적인 학교 앞 선전전을 펼치며 꾸준히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평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피해사례를 쏟아 놓았다. 학생인권연대 카페에는 하루 수십 개가 넘는 게시 글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다산인권센터 사무실로 직접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저희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 “학생에게도 정말 인권이 있는 거냐”, “선생님이라고 함부로 때리고 욕해도 되는 거냐” 등, 그 동안 꾀꾀 눌러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터트렸다. 많이 분노했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맞았어요, 꼬리뼈가 부러졌대요, 단체기합을 심하게 받고 친구가 쓰러졌어요, 벌점이 쌓여서 걱정이예요, 자꾸 성적으로 차별해요...” 안 그래도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온라인과 직

접 만남을 통해 들었다. 그냥 가만히 소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마음에 앉혔다.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너무 화가 나서,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황이 억울해서, 그러다 학교의 오른팔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학생회장 같은 학생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날은 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폭력의 학교에서 몸으로 터득한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다. 학생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마다 더 만나고, 더 조사하고, 더 꼼꼼해지고,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애썼다. 새삼스레 학생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하는 당사자들의 행동, 학생들의 직접 행동, 스스로의 움직임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강제 전출 저지'로 시작한 학생인권연대는 이후 전반적인 학생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연대체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2009년 말, "동네에서 청소년운동 하기"를 고민하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수원지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아수나로 수원지부의 청소년인권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고민의 폭을 넓혔다.

현실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한참 망포고, 예당고, 천천고 등 주요 학교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학생인권 모임을 꾸리는 것에 힘쓰고 있을 때였다.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험난한 여정을 예상했던 탓일까, 주변 활동가들도 "조례를 만든다는데, 에이 그게 지금 가능하겠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광주, 경남지역 등에서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2006년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당시의 경험과 담론이 있었기에 꿈꿔볼 만한 두근거림이 있었다.

학생인권의 현실을 들여다보아도, "인권친화적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는 탈이 많았다. 경기도 교육위원 아저씨들이 "어머, 이런 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예요." 하면서 예산을 뭉텅뭉텅 깎아버리지 않나,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방안에는 무관심하질 않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청회 등에 나와서 '일단 반대'를 외치질 않나... 그럼에도 곧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려졌고, 다산인권센터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2 겨울 청소년인권이야기
청소년과 인권은
그렇고 그뿐 사이니까 //

Track List 1 | 2012.1.17 월 PM2:00
 01. 안희, 그대 빛나는 거울(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02. 김기현(한양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MC: 노수민(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Track List 2 | 2012.1.18 수 PM2:00
 03. 내일(아수나로), 남의 복종(한양대)
 04. 최유주, 공정한 선거(아수나로)와 학생인권(아수나로)
 05. 김기현(한양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MC: 노수민(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Track List 3 | 2012.1.19 목 PM2:00
 06. 최유주, 공정한 선거(아수나로)와 학생인권(아수나로)
 07. 최유주, 공정한 선거(아수나로)와 학생인권(아수나로)
 08. 최유주, 공정한 선거(아수나로)와 학생인권(아수나로)
 09. 최유주, 공정한 선거(아수나로)와 학생인권(아수나로)
 MC: 노수민(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www.asunaro.org | 02-779-1111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www.asunaro.org | 02-779-1111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www.asunaro.org | 02-779-1111



물론 처음부터 인권단체가 이 자문위원회에 결합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서, 또는 그 내용이 현실에 비해 너무 미흡해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문위원회 구성도 '대충' 해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기 위한 '학생참여기탁단(학참단)' 구성도 다산과 같은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던졌기에 그나마 틈새를 만들 수 있었다. 학참단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직전까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례 초안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입법과정을 밟을 때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되지 않고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은 교문을 넘어섰는가. 제대로 잘 지켜져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서 빼그덕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학생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중략) 존중받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라는 인권보장의 기본적 정신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인권과 교육의 만남을 그리며 학교의 변화를 꿈꾸는 학생인권조례. 그래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학생인권조례 이후'가 꽤나 큰 변화의 기준이 되었음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기에 이것을 딛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기존의 틀로는 변화하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과감히 현상을 유지하는 틀 자체를 바꾸어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의 학생인권 운동에 "보다 현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운동에는 다시 그 '현실'을 넘어, 또 다른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실려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볼륨을 높인다.

인권의 가치가 구석구석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산인권센터 라디오 방송 '인파속으로'는 시작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코너인 "청소년 인권 고고생"은 그 동안 쉽게 떠들 수 없었던 "청소년 인권" 이야기를 '청소년' 활동가가 들려주는 코너였다. 2008년, 나름대로 생생한 청소년이었던 DJ는(^~^) 아직도 처음 녹음기를 잡던 순간을 기억한다. 라디오팀 회의를 거쳐 주제를 정하고, 그때그때 대본을 쓰고 녹음하고, 편집까지... 인권, 교육, 학생간 폭력, 차별, 입시경쟁, 당시 전국을 들쭉쭉 찢어놓았던 촛불집회 이야기, 그 속에서 만난 청소년 인권, 지역 이슈, 청소년 행사 소식 등 주제도 다양했다.

여러 모로 부족했지만 라디오 방송은 지역에서 '학생·청소년 인권 고고생'을 외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학생·청소년인권 운동도 여러 활동을 넘나들면서 조금씩 성장해왔다. '두발자유·체벌금지'로 대표되던 인권의제에서 교육과 학생자치, 학교 안 민주주의까지 나아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숙·미성숙 담론에 둘러싸인 견고한 기준 깨기, 정치적 권리 요구, 친권·가족주의를 통해 본 청소년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보호주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불만'이 가득했던 한 청소년이 인권을 만나며 그 자신의 삶이 풍성해졌다고 말하듯, 지역의 학생인권 운동도 다산인권센터의 활동 속에서 조금씩 볼륨이 높아져왔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혹은 '듣는 시늉'만 했던, 학생인권의 볼륨을 높여나가는 일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작고 낮은 곳까지 예민하게 인권활동을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인권을 만날 수 있게, 결국 인권이 든든함이 될 수 있게, 우리의 활동이 더 씩씩해지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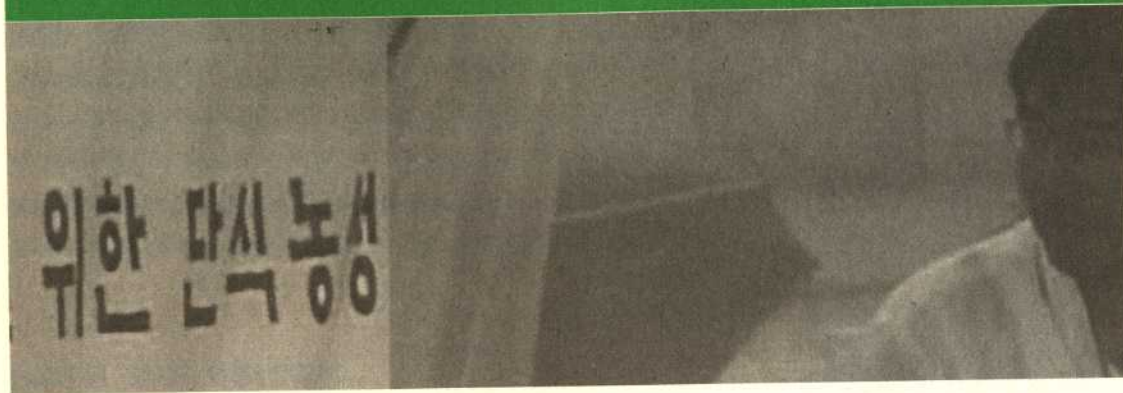
난다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노동인권은 다산의 근거이자 뿌리

랄라

"당시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노동인권관련 상담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 노동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1993년 인권상담소를 개소하게 된 거죠. 상담소의 주된 활동은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과 노조 교육활동이었어요."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 자료집 중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자료집이 태어난 10년 전보다 더 10년 전, 인권상담소(다산인권센터의 전신)는 같은 고민을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시대와 세월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0년 전보다 더 각박해지고, 얼어붙은 세상은 아직도 20년 전의 고민을 반복하게 합니다. 20년 전, 처음의 고민에서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려는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의 노동인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노동인권의 가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인권에 뿌리를 둔 이 나무는 굳게 자라났습니다. 20년 동안 뿌리가 깊었던 만큼 많은 가치를 뽐내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직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열매는 언젠가 열리겠지요. 하지만 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나무의 가치가 더 넓어져 많은 이들이 쉴 그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흐뭇해지니까요. 이 나무의 큰 가지 중 하나가 노동인권이었습니다. 다산은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노동인권 사안과 함께 했습니다. 모진 시대에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산이 태어난 1993년부터 한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해고당하고, 구속당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라는 요구는 언제나 묵살 당했습니다. 다산은 이 묵살당한 요구를 지켜내고자 함께 했습니다. 다산은 노동조합 지원, 법률자문, 노동인권 교육 등을 함께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초창기의 고민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노동인권은 구석기시대

21세기, 밀레니엄,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대/경기대 청소 노동자 투쟁,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옥쇄 파업,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 투쟁... 아직도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노동 탄압은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멈추고, 공장을 점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다산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희망버스 승객으로, 지역에서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교재를 발간하고, 경기지역 장기투쟁 노동자들과 희망으로 무르익을 김장을 담그고, 그들의 삶이 담긴 인터뷰집도 펴냈습니다. 수천 일이 넘도록 싸움을 해도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공농성을 해야 언론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노동 현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가 당연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작고 미약한 힘일지언정, 앞으로 이런 싸움에 늘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다산이란 나무의 노동인권 가치는 앞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노동인권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활동으로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 기획모임 등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고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하고 있지만 존재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청소년 노동에 함께 할 활동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빗바리들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 정기모임(줄여서 '노인정')을 통해 학습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시선에 맞서, 늘 현장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인권이 보장받는 사회, 모두가 착취 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세상, 자유롭게 노동하고 쉴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열매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넓은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20년 전 초심의 고민으로 앞으로 10년, 아니 그 후까지 노동인권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랄라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촛불에 데고 촛불로 타오른 다산

안병주

2008년 5월 2일, 5월 1일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투쟁이 끝난 다음날, 일군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광우병 촛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 중 80%가 중고생들이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시위에 나온 청소년들은 곳곳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분통 터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성토했습니다. 무대도 없이, 변변한 마이크 시설도 없이 그렇게 수만 명의 시위는 조직된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5월 24일부터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됐고, 그 후 날마다 집회와 가두행진 그리고 경찰의 진압이 반복되면서 집회 구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부터 교육, 경부운하(4대강 사업), 의료 민영화로 확대됐고, 결국은 '이명박 OUT'이 집회 구호의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2008년 촛불에서 다산인권센터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 한때 오르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좀 엉뚱하고, 불현듯 찾아온 순간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욕을 많이 먹었던 사건(?). 바로 광화문 명박산성 스티로폼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촛불 이야기는 뒤에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그때 그 사건으로 가봅시다.

광화문 명박산성 위의 스티로폼 너

2008년 6월 10일, 그 이름도 유명한 '명박산성'이라 불린 광화문 네거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선 그날, 어디선가 거대한 스티로폼이 명박산성 밑으로 옮겨집니다. 이 순간 곳곳에서 고함과 고성어 오가기 시작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스티로폼을 쌓고 명박산성을 넘어가자' '아니다, 비폭력 평화시위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여기저기 스티로폼을 옮기는 사람들과 막는 사람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집회장에서 경찰폭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활동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스티로폼 쌓는 것을 중단한 채 광화문 네거리에서 토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쌓인 스티로폼 위에 올라가 사회 아닌 사회를 본 인권활동가들은 하나 둘 시위자들의 비난과 욕설에 얼마 못 버티고 내려와야 했고, 급기야 박진 활동가까지 차례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티로폼 너'가 된 순간이었지요.

당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까지 되는 상황이었으니 온라인에서도 비난의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 스티로폼에 올라가 선동하는 저 여자가 누구냐'는 글에 이어 실시간 검색으로 '다산인권센터 박진'이 올라오고, 급기야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욕설섞인 문자와 항의성 글이 쇄도했습니다. 아, 다산인권센터가, 그리고 박진이 유명해진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너'의 결말은 다행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밤샘 토론을 거쳐 결국 컨테이너 위로 각각의 깃발이 올라가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폭력에 맞서 상징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광장에서 집단 토론과 그에 따른 행동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너' 사건은 단발성으로 끝났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원에서는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6일 시작된 수원촛불이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광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촛불시위는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 그리고 경찰의 물리적 폭력까지, 그야말로 스펙터클하게 진행된 반면 수원에서는 다양한 의제와 구호, 단체와 개인들에게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초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감시단>이라는 지역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출발한 수원촛불은 단체 중심의 감시단 활동을 종료하고 '여기는 수원시민광장' (현재는 수원촛불광장)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수 수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촛불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의 시간은 저항의 시간이자,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도와 형식에 얽매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인권활동가인 우리가 촛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조직과 단체에 의해 독점(?)되는 운동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함께 조직되는 운동, 이것이 촛불의 중요한 배경이고 이유입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거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원촛불 4년의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혹은 인권활동가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을 통해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인권운동은 촛불의 현장에서 더 깨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안병주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너의 삶을 응원하며 "좋아요", 100개를~

쌤통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너의 소망과 가족에 대한 애뜻함, 인권운동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를 다시 설명해 내보이는 것이 많이 어색했을 텐데 넌 진지하면서도 유머스럽게 고민과 생각을 차분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난 너를 다시 알게 된 듯하다.

재미있고 개구쟁이 같은 넌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 너의 별칭처럼 항상 앙큼상큼 랄라로 지내고 싶은데 요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우울하다 했지만, 이내 너의 동강아지(아들) 이야기에 얼굴이 밝아지더라.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응답하라 1997>이잖아. 나 역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너도 동강아지 재우라 같겠지?) 그 드라마를 보면 네가 생각나더라. 술 한잔씩 하면서 각자의 학창시절 이야기로 수다를 떨면, 난 UP(뿌요뿌요를 불렀던 가수)의 스타 데이트 참가기를 무용담처럼 풀어냈고, 넌 H.O.T 팬클럽 활동을 이야기했지. 하지만 화려한 너의 학창시절에 난 견줄 바가 아니란 걸 이야기 중반쯤 되면서 깨달았어. 언젠가 H.O.T 팬클럽 지역구 지부장을 할 거란 다부진 포부를 가졌다는 너의 이야기는 인상적이면서도 여기에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란 걸 다시 상기하게 되었지.

"인권운동을 넌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내 질문에 얼굴이 갑자기 벌게지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너의 표정이었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든, 이론적 지식이든, 정보든... 많은 걸 알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넌 최근 '팔탄폭파'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마음이 간다고 했어. 대학 다닐 때는 운동이 변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지호가 행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행복한 에너지가 지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싶다는 너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더라. 엄마가 되고 나서 달라진 너의 모습 중 하나가 지호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

오늘 너의 페이스북에는 갑작스런 비에 우산을 샀지만 황망하기 그 지없이 비가 그쳐버렸다는 내용과 고픈 배를 쓰다듬으며 '몽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서울에 가고 있다는 너의 메시지가 보인다. 강동원을 만나기 위해 연예기자를 꿈꾸며 기자학교를 빠짐없이 서울로 다녔던 너는 오늘 다른 일로 서울에 있구나.

난 언제나 너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게 ^^

쌤통은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다산,
다산
사랑을
보여

2012년 다산인권센터 창립 20주년 회원 및 시민 설문조사

다산인권센터 회원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년간 다산인권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다산인권센터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단체에 대한 회원 및 참여방안, 그리고 다산인권센터가 나아갈 비전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다산인권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대단히 활용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답변에 해 주세요!

기획 · 설문조사로 본 다산 벗어나리

키워드는 인권향상과 참여

이광훈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회원(벗바리)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산에 대한 인식과 참여방안, 그리고 다산인권센터가 나아갈 비전 등이었다. 설문조사는 다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이용해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고, 111명의 회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응답했다.

지역사회 인권을 위해 일할 때 가장 좋았다.

다산의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회원과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65명(59%)이 '지역사회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좋았다'고 답했고, 19명(17%)이 '언론매체 등에서 활동 관련 소식을 들을 때가 좋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에게 다산의 활동이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10명 중 3명은 '다산이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한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산의 활동에 대한 회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인지도와 관련한 질문도 던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20% 정도만 '다산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산의 활동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거나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향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문자메시지와 웹진을 선호

다산이 그동안 활용한 매체는 홈페이지, 웹진('다산인권'), 라디오 방송 '인파속으로', 다음 카페, 격월간 회원소식지('몸살') 등이 있다. 조사 결과 회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다산의 행사 및 소식을 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웹진, 소식지 등을 통해 접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선호하는 홍보방법으로 문자 메시지와 웹진을 꼽았다.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10명 중 7-8명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산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는 응답자만 따로 분석하면 다산 활동소식을 가장 많이 찾고 다음으로 공지사향, 웹진, 인권자료실을 들린다. 또한 다음 카페에 접속하는 분들도 공지사향과 활동소식만 살펴본다고 답했다.

소모임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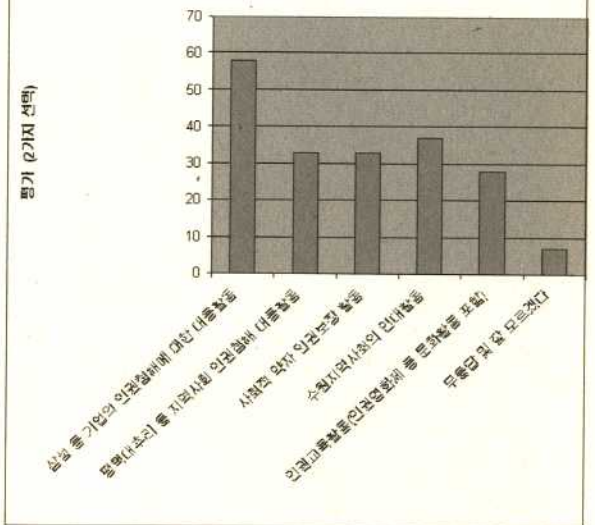
이번엔 회원들의 참여활동에 대해 물었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활동가 또는 지인의 추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산의 행사나 사업 참여 비율이 높았다. 회원들의 참여활동 수준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대략 8명이 소극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주된 이유는 역시 시간 부족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회원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은 인권향상에 기여한 점과 사회참여 확대를 보람으로 꼽았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는 다산의 주요 행사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두 잔치, 지역운동포럼, 김장 담그기, 수원춧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 응답자의 절반은 앞으로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기반 참여구조 확대 필요

다산은 그동안 인권현안에 대한 지역연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회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들은 삼성 등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원지역에서의 연대활동, 평택 대추리 등 지역사회 인권현안 대응,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활동, 인권교육 활동(인권영화제 등 문화 활동 포함)을 주목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다산의 문제점으로 시민단체 및 회원들의 참여 부족과 재정구조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이슈중심 인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표1 활동성과



응답자에게 다산이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영역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뿌리 주민운동을 가장 시급한 활동으로 꼽았으며, 회원 참여에 기반을 둔 대중적 운동 기획,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인권정책 마련, 전문성 강화 등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와 주문은 20년에 걸친 다산의 활동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의미와, 지역에 기반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활동에 대한 총론적 평가와 미래의 비전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향상'과 '참여'다. 즉, 다산의 모든 활동은 인권향상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통해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다산의 미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이광훈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스무살 다산, 인물열전

인권활동으로 물 만난 열명이 넘는 전사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다산인권센터가 20년 동안 든든한 단체로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벼바리, 자원활동가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셨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산엔 인권활동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인권현장이면 언제 어디나 달려갔던 활동가들이 있었다. 나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김철준(김동균, 노정희, 여운철)과 오세범 그리고 허선

다산인권센터는 김철준 변호사와 오세범 상담실장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김철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화 활동을 하다가 노동운동과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89년 수원으로 내려왔다. 당시 오세범 상담실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벌이면서 수원 지역사회에서 노동상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원지역에 연고가 없던 김철준 변호사로서는 파트너이자 동지로 오세범 상담실장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고 결국 이들은 의기투합하게 된다.

1990년 변호사 개업 후 줄곧 경기 남부지역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은 물론 노동, 학생운동 관련 시국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다시피 했다. 다소 보수적인 수원지역 법조계에 이들의 등장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들은 본격적인 인권활동과 체계적인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 1992년 8월 28일 '김철준, 김동균 합동법률상담소' 부설 "인권상담소"를 정식으로 개소했다.

인권상담소를 전담하던 오세범 상담실장이 1993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겠다고며 <내일신문>으로 옮겼다. 이후 오세범 실장은 2011년 사법시험에 최고 연장자로 합격하여 사법연수생 생활을 하고 있다. 오세범 실장이 떠난 뒤엔 녹십자 노동조합에서 해고되어 복직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인권상담소와 인연을 맺은 허선 씨가 상담실장을 맡았다. 지역 시민단체, 노동상담소, 노동조합 등과 체계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허선 실장이 들어오면서 다산인권상담소는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사회 단체들과도 왕성한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허선 실장은 현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며 다산인권센터의 노동인권 모임 세미나를 함께 하고 있다.



송원찬, 박진

다산인권상담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지역에서 운동적 요구가 커지면서 인력보강이 필요했다. 그때 20대 젊은 피가 수혈된다. 그가 송원찬과 박진이다. 송원찬은 학생운동으로 수감되어 김칠준 변호사로부터 변론을 받은 인연으로, 박진은 학생운동을 거쳐 지역에서 청년운동단체 활동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 각각 1995년과 1996년 다산인권상담소에 영입된다.

두 사람의 참여는 변호사 사무실 부설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적인 인권단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계기가 된다. 다산인권상담소는 이 때 상담실장 체계에서 소장 체계로 변모했다. 1996년 제1대 소장 김칠준 변호사, 1997년 제2대 소장 노정희 변호사, 1998년 제3대 소장 김칠준 변호사, 2000년 제4대 소장 여운철 변호사가 역임한다. 이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노동 및 공안 사건 소송 업무에 전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 시민 학교 등 공동체 운동, 노인복지주간 행사 등 사회복지운동, 인권영화제 개최와 인권교육 사업 등 인권의 일상화 활동,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와 통일한마당 등 지역사회 연대운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다산인권상담소의 독립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 시기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운동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인권운동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다. 다산인권상담소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1999년부터 다산인권상담소 활동가들은 상담소의 비전과 조직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한다. 전문적인 인권운동 단체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상징적 변화로 2000년 상담소라는 이름이 갖는 수동적 성격에서 벗어나 인권단체로의 전환을 분명히 하는 명칭 변화를 추진했다. '다산인권상담소'에서 '다산인권센터'로 단체 명을 바꾼 것이다. 그와 함께 2001년 변호사가 소장을 맡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송원찬 활동가가 제5대 소장이 되었다. 최초로 활동가 중심의 소장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송주현과 노영란

다산인권센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 및 지원활동의 강점을 살리면서 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전환 등 모두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송주현과 노영란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송원찬과 박진은 그동안 수행했던 법률 소송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인권활동에 전념했다. 반면 허선 상담실장과 송주현 간사는 노동, 공안사건 소송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실상 다산인권상담소는 이때부터 두 바퀴로 굴러갔다.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노영란 기자가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인권단체로 전환하는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2002년에는 소장-사무국장-간사라는 수직적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수평적 상임활동가 체계로 전환했다. 더불어 운영위원회 구성과 정관, 내부 규칙 마련 등 조직을 정비했다. 활동가의 활동비를 균등하게 나누고, 모든 의사결정을 상임활동가 전원합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인권포럼, 회원 소식지 '몸살' 발간, 팩스 신문 '다산인권' 발행, 반전평화 캠페인, 청소년 인권캠프와 모의 법정 공모사업, 수원비상시국회의, 아셈2000민간포럼 인권분과 참여 등 다양한 인권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10주년을 맞았다.

정상용, 토리(박김형준), 최성규

본격적인 인권운동 단체로 위상을 정립하면서 다산인권센터는 광복행진을 지속했다. 2003년 이후 청소년모

의법정 대본 공모사업 확대 시행, 제8회 인권영화제 개최, 한총련 합법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 수원 남부서 의경 자살 사건 대응, 경제자유구역 저지 등 자유권과 사회권 현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산인권센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활동가 층원이 요구되었고 수원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정상용 활동가가 들어오면서 이라크 파병반대 등 반전평화 운동을 수원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또한 네이스 투쟁 등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담당 한 토리(박김형준)가 다산인권센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산인권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세대교체 바람이다. 10주년을 넘어 2005-06년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다산인권센터를 지켰던 활동가들이 하나둘 활동을 이전한 것이다. 송원찬 활동가는 경기복지시민연대라는 복지운동 단체, 정상용 활동가는 귀농, 노영란 활동가는 건강상 이유로 정리하면서 새롭게 판을 짜야 할 상황이었다. 박진 활동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최성규, 김경미 활동가가 새롭게 들어왔다. 이때부터 다산인권센터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활동의 내실을 꾀하게 된다.

메달(김경미), 김산(김진태)

반전평화연대 활동 등을 함께 해온 메달이 활동가로 충원되었고 이후, 월드컵 아동 노동 캠페인 당시 수원대에서 함께 활동한 김산이 활동가로 합류했다. 메달은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을 맡았고, 김산은 노동권을 중심으로 함께 일했다. 현재 메달은 자원활동을 계속 해온 난다와 인권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안병주, 랄라(안은정), 한지혜(난다)

수원축북, 지역운동포럼 등 다산인권센터의 지역활동을 같이 한 지역운동의 핵심 일꾼 안병주가 다산인권센터에 결합한다. 그리고 자원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함께 해온 랄라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안병주와 랄라는 경기지역 장기투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희망김장, 사람꽃 콘서트를 통해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팔탄 폭파 사건 인권침해 진상조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경기이주공대위,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한 반올림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안산 SJM 용역경비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난다는 메달과 함께 2013년 설립을 목표로 인권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의 20년은 변화의 시절이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보다 인권적인 변화를 위해 모색했고 실천했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은 모두 사람에게서 나왔다. 세상에 버릴 수 없는 것은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였지, 자신들의 안위나 주저함은 아니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다산인권센터의 20년이 있었다. 상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애정과 신뢰로 함께 한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본과 권력에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게 지지해준 벗바리들과 법무법인 다산의 동료들이 있었다. 인권활동가들,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 모두가 다산의 인물열전에 포함시켜야 할 아름다운 이름들이다. 그들과 함께 다시 20년, 30년, 100년의 역사를 쓸, 그 모든 이들이 인권의 주인공들이다.

송원찬 님은 다산인권센터 전 상임활동가입니다.

그때 그 자리

1992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1. 경제적 궁핍 또는 무지 때문에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2년 8월 28일 법무법인 다산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0년도 마찬가지로 20년 뒤를 그리기 위해 20년 전 1992년 8월 28일을 기억합니다.

한겨레신문 1992년 8월 28일 기사



2. 1996년 3월 11일 「다산인권」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만큼 「다산인권」이 나온 주기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지 형태로 만들어지다가 2000년 격주간 팩스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는 웹 소식지 형태로 2주마다 발견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시기별 인권현안과 다산인권센터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다산인권」, 다산인권센터의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과 인권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늘 새롭게 변화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또 다른 모습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역의 인권지킴이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들

“10년의 무게를 버리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는 제목이 붙어있다. 10년이 지난 여섯도 중요한 지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있어 때문에 초심에서 다시 재해석한다는 의미이다.

8년째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임활동가 송현진(27)씨는 “10년 전엔 미안하면 민권의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다. 사회 약자들을 위해 사한을 더 낮추고 언제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1982년 변호사 사무실 외 부설기구인 인권상담실로 문을 열고 노동상담 및 법률적 지원, 공안관련 사건의 법률적 구조활동 등을 담당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1992년부터는 노동권, 최저임금, 지역노동, 인권영화, 인권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본격적인 인권단체로 자리를 잡았다. 2000년부터는 인권상담소 등 다산인권센터로 단체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에서 친목적 인권운동을 시작하는 운동단체로 거듭났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들의 활동역은 별도의 지킴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송정, 사동, 죽동, 갈산이 체계로 운영되던 것을 권민 상임활동가 체계로 전환할까 고민했다. 인권단체인 센터 내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의사결정과 관계정립을 위해서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더 낮은 곳을 향해,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책자에는 “10년의 무게를 던져버리다”라

글/사진 029 김문호 photo@nael.com

3. '10년의 무게를 버리고 더 낮은 곳을 향해...' 10년 전 다산인권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항상 더 낮은 곳을 향하자는 생각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활동가들의 애 띤(?) 얼굴이 눈에 띕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다산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더 낮은 곳을 향해,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출처로 합집 20등을 맞은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들이 오는 27일 인권콘서트를 준비하는 사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진, 안은경, 나다, 김경미, 안병우씨.

다산인권센터, 창립 20돌 맞아 27일 수원시 인권콘서트 열

1992년 8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안동 수원지방법정 앞 한 빌딩에 최근까지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하나를 모았다. 당시 법무법인 다산의 김철준(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김문호 변호사가 이들과 함께 '다산인권상담소'(현 다산인권센터)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인권'이 생소한 시절,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 인권 지킴이'로 시작해 이제 소수설계 성년이 됐다.

비좁은 법률사무소 한쪽에서의 누추한 시작이었지만 이들의 실천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한 역사이기도 하다. 커다란 사회적 노동자 감시의 상징물에 맞서 싸우고 명목 대우와 생활차 노조 협력 현장에서 국가폭력에 맞섰다. 자살한 의공과 차별받는 장애인, '출산' 등 서민들이 내뿜는 현장에서 이웃 활동가들은 큰몸을 던져 인권을 지켜냈다.

20대 시절 상담소에 뛰어들어 마흔이 된 상임활동가 박진씨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대한민국 인권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삶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2000년 지금의 다산인권센터로 독립하고 함께 운영하던 사회복지시민학교는 경기북지시민연대로, 다산인권재단은 인권재단 사명으로 독립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실험실에서는 늘 똑같은 지금의 인권 재개발지역에서 전세살이를 하지만 사무실은 삼근 활동가 4명과 자원활동가 10명으로 활기가 넘친다.

2008년 서울중앙의 '출생소년연단' 난대(20), 여성 및 노인운동가인 김경미(34) 안은경(32)씨, 환경운동가 송정, 평화운동가 송정, '스카우트(7)인성교육' 안병우(39)씨가 오늘도 국뽕이 인권 지킴이 구실을 이어가고 있다. '각개는 한달에 1만원에서 약 10만원씩의 회비를 내는 3000여명의 회원들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임활동가 김경미씨는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며 '센터도 시대적 추세를 맞춰 기능을 더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청소년과 장애인, 학생, 노동자 등을 위한 인권교육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다. 결국 시간을 건너온 다산인권센터(031-219-2105)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수원 상호아트홀에서 인권콘서트 '그 사람 소수설, 인권이 웃는대'를 연다. 가수 강희달과 최정현 신주아 <부부산> 등을 노래하고, 사건가 노년설 씨와 판화가 이준철씨 등 현장 작가들이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증한 작품을 파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수원/글 사진 홍문익 기자 ydhong@hani.co.kr
〈한겨레 연거기사〉

4. 다산인권센터의 스무 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인권현장에서 더 열심히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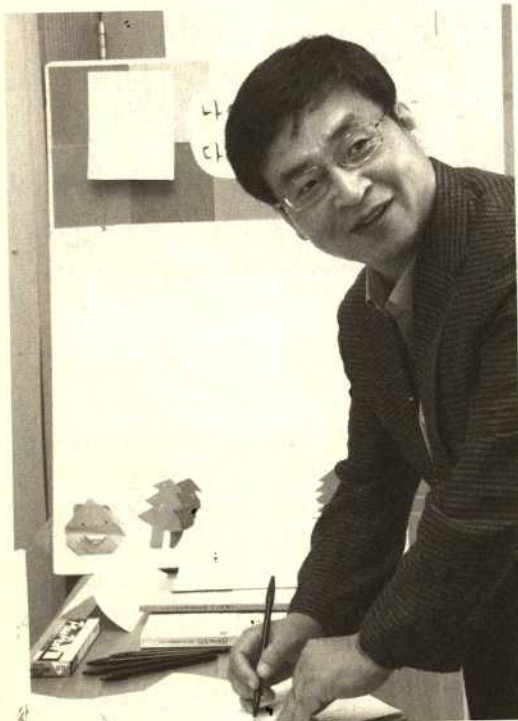
그 사람 스무 살-20주년 홈커밍데이

반갑습니다. 함께 가요 우리!

오렌지가 좋아

2012년 6월 16일, 스무 살,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그리운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다산인권센터 '홈 커밍데이!!'

'홈 커밍데이' 준비를 위해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오후 3시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4시를 넘겼습니다.
다산의 1세대를 열었던 김동균 변호사가 인증샷으로 사용할
'나에게 다산은 000이다' 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균 변호사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 둘 오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그냥 앉혀둘 순 없어서, 자리에 앉기 전에 한 분씩 다산에 대한 마음을 작은 손 피켓에 적어서 인증샷으로 남겼습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진 뒤 비올의 사회로 시작된 '홈 커밍데이!!' 그 첫 순서는 오늘 오신 손님들의 인사입니다. 그간 자주 뵈던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많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라라와 메달이 진행하는 '나에게 있어 다산이란' 코너입니다. 자신에게 다산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 20년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이 한 데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는 재활용 폐품들을 모아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재활용 밴드의 공연입니다. 재활용 밴드에도 다산에서 활동하던 분이 계셔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엔 20년간 다산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다산의 빠듯한 재정상황도 공유했습니다. 다산의 살림살이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말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맛있는 먹거리. 든든하게 배를 채워줄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다양하고 푸짐한 메뉴와 가벼운 술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분들과의 술자리여서 더 없이 즐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산과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산의 오랜 벗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산 상임활동가 랄라의 아기도 홈 커밍데이에 함께 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도 다산과 함께 커갈 것입니다.

오렌지가 좋아하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나에게 다산은, '초등학교' 다.

푸른솔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야 했던 2010년 초, 나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대학교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다. 하지 못했던 일 중 하나가 '인권운동' 이었는데, 마침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서 '새해에는 운동합시다.' 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심있게 <한겨레21>을 살펴보다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해보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의외로 싱겁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 전에도 이런 저런 통로로 운동단체를 기웃거린 적이 있었지만 좀 더 분명한 소임을 갖고 활동하게 된 것은 다산이 처음이었다. 비록 내가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지는 못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하고 라디오 팀에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탐색전을 잘 진행했던 것 같다.

나는 특수교육을 전공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엔 꽤 관심이 많았지만 다른 소수자 인권 문제엔 둔감한 편이었다. 다산에서 다른 분야의 인권운동, 특히 청소년 운동을 만나면서 내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범대 안에 있다 보면 청소년과 학생의 시각보다는 교사의 관점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산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속으로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20주년 준비로 한창 바쁜 때인데 내 마지막 학기와 겹쳐 활동량(?)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 이제야 내가 뭘 해야 할지 찾아서 시작하려는데 김이 빠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더 크다.

나는 이 글 제목으로 '다산은 나에게 초등학교' 라는 좀 유치한 제목을 붙였다. 초등학교는 처음 낯선 이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고, '나'를 넘어 '남'의 시선을 배우는 곳이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내게 다산은 '초등학교' 인 것이다.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고, 내 관심사를 넘어 다른 운동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 인권센터 사랑합니다.

푸른솔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묵묵한 일꾼, 다정한 아빠 허기저
어리버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묵묵히 일하는 남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

음식을 만들어 베풀기 좋아하는 살림꾼,

다산에 오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내 친구 허기저입니다.



어리버리는 허기저의 절친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빨간 벽돌집

메달

따다다~ 따다다~ 웰컴투 다산인권센터^^ 자, 이제부터 다산인권센터 러브 하우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마당에 큰 목련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지만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앞마당이 갈색으로 변한다는 점~ 부지런을 떨어야 깨끗한 앞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산은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층엔 자료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가끔 회의나 행사도 진행하지만 주로 밥을 해먹습니다.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점심 때 다산을 찾아주시면, 따뜻한 밥 한 끼는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끔 출몰하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고요? 가끔 영험하신 분들은 1층에 거주하시는 언니들과 만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기위 놀림과 험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하루 빨리 언니들의 한이 풀어져서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1층을 받게 꾸며 보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심한 앤틱이다 보니 미가스며 얼룩이 생기고, 화장실 불이 나가기도 하고 장마 때 늘 두꺼비 침도 내려갑니다. 페인트를 칠해보고 벽지도 새로 붙여보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름 계단을 타셔야 합니다. 가끔 두 세 명이 지나가면 계단이 휘청 휘청 춤을 추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러다 무너지는 게 아냐?' 했지만 여전히 견재하답니다. 그렇게 구름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오시면 그 공간 테라스(완전 좋게 표현하 말라)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는 좋은 햇살과 자연식을 리빙으로 즐기며 일대를 볼 수 있고 쉼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문을 열고 2층으로 들어가면 2층에는 물리 입식과 좌식 모두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작은 공간은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있는 입식이구요. 작은 방에서는 오솔도순 앉아서 화의도 하고 할거 주를 잘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살림이든 보자 이거 가장 필요한 물건이 맞아요. 이해를 사무실 이전도 하게 될 텐데 그중 한방까지 작으로 생활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산이 이곳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모두가 편안히 오갈 수 있는 사랑방이 있으면 합니다.

메달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는가?’
다산인권센터의 과거를 묻다**

- 사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좌담 : 김철준(법무법인 다산 공동대표)
박진, 김경미(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정리 : 안병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래군 : 본격적인 좌담에 들어가기 전에 다산인권센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김철준 :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다산인권센터의 슬로건이 다산인권센터의 본질이다. 인권을 향한 공격에 대해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다.

박래군 : 그런데 꺾ioni 양보했다. (웃음)

김철준 : 서브 타이틀로 영원한 엔터테이너 박진을 추가하자.

박진 : 이제 그건 메달하고 랄라한테 양보했어요.

박래군 :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꼴통 아닐까.(웃음) 고집스럽다는 것인데, 한 번 하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김철준 : 양보 없는 원칙을 가지고 끈질기게 활동하자는 것이다.

메달 : 인권단체들 활동가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보니 청소년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산을 부러워들 한다.

박진 : 어쩌면 플랫폼 같다고나 할까? 누군가 필요에 의해 다산을 찾아 오는데, 해결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오면 떠난다. 오고 떠나고 오고 떠나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

가난한 살림, 알바로 버티는 활동가들

박래군 : 인권단체에서 중요한 게 재정문제다. 인권재단 돈은 언제 줄 거냐.(다산인권센터 전세금 3천만 원이 인권재단 돈이다. 같이 있을 때 나누어서 냈다.)

박진 : 지금부터 돈 모을 고민을 해야 한다. 집도 이사하고 인권재단 돈도 갚아야 한다.

박래군 : 법무법인 다산에서 독립할 때도 가장 큰 고민이 재정이었을 것 같다. 현재까지 재정상황을 평가한다면?

메달 :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했다.

박진 : 인건비가 가장 큰데,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에 크게 의존한다. 지금 3인의 활동가는 법무법인 다산에 의존하고 1명만 독립적으로 지출한다.

박래군 : 100만 원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 활동가들은 어떻게 사나?

박진 : 나는 알바하면서 산다. 알바를 하지 않으면, 최소 생활비를 채울 수 없다.

박래군 : 최소활동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나?

박진 : 활동가들이 알바 없이 활동하려면 최소 150만 원은 되어야 한다. 실은 그것도 적다.

메달 : 어떻게 후원을 조직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까 고민하지만 어렵다.

박래군 : 그래서 인권재단에서 앞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모금 전문가 채용을 고민 중이다.

인권운동과 풀뿌리 운동이 만날 수 있을까?

박래군 : 반올림 이전의 삼성 싸움은 법무법인 다산과 다산인권센터가 해오지 않았나?

김철준 : 자유권 측면에서 경찰관련 대응도 그랬다.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었다. 기획과 실행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아쉽다면 최근엔 법무법인 다산 내부 사정상 인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박래군 : 교류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김철준 : 예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서로 말 꺼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 아쉬움보다는 인권센터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성과다.

박래군 : 화이트빌(구 다산인권센터 건물) 이후 현재 이곳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자.

김철준 : 법원사거리로 이사할 때도 법무법인 다산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뒀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사무실로 옮겨갈 때 무척 좋았다. 본격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간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박진 : 솔직히 풀뿌리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원한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슈와 의제를 감안할 때 인권운동은 호흡이 매우 빠르다.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와 체질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김철준 : 인권운동이 주민운동일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주민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따져봐야 한다. 지역운동 또는 현장운동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기존에는 큰 이슈 중심의 인권운동이었고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 왔다. 반면 지역운동은 구체적인 생활, 삶의 공간에서 인권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사랑방 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박래군 : 풀뿌리 운동과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한번 만났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

김철준 : 이제 인권운동에서 풀뿌리 운동의 개념을 만들고 구성해야 한다.



김철준



메달



박래군

“해결사를 자처한다면 필패”

박래군 :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산의 활동을 정리해 보자.

김철준 : 노동상담 중심에서 시민운동 영역으로 넓히는 과정이 있었다. 청소년, 여성, 농민 사건 등 의제가 넓어졌다. 상담소와 법무법인 다산이 분화되고 아셈회의를 거치면서 '인권운동'이 특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박진 : 사회복지 분야 역량이 '경기복지시민연대'로 간 것으로 보면 된다.

김철준 : 그때 인권상담소 이름으로 '노인복지'도 했다.

박래군 : 인권상담소가 꽤 많은 걸 만들었네...

김철준 : 아파트 공동체 운동도 상담소에서 시작했다. 그걸 계기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에 가서 아파트 운동을 한 것이다.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메달 : 운동하는 곳은 어디를 가나 활동가 재생산 과정을 고민하는 것 같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인권활동가 대회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 자원활동가들을 키우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박래군 : 활동가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과 시민역량을 키우는 것 모두 필요하다. 활동가들만 가지고는 폭발하는 인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메달 : 개인적으로 자신이 활동가로서 자질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있다. 5년 넘게 활동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 이런 걸 조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잘 안 보인다.

박래군 : 그럼에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박진은?

박진 : 짹짹거리는 게 재밌다.(웃음) 16년 했는데... 인권단체 자체도 변화되어 왔던 과정이었다. 활동가 사이의 진심이 변화의 원동력이었다.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이기에 소임이 큰 것 같다.

박래군 : 우리 모두가 관성에 젖어 있다. 점검하고 성찰할 때가 됐다.

박진 : 나한테 문제가 있다. 오래된 사람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다. 중심을 잡고 선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메달 : 외국의 경우 본연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운동가 또는 인권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고립된 느낌이 강하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처럼.

박래군 : 지역에서는 다산인권센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영향력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다.

메달 : 다산이 영향력은 있지만 다산은 원래 그런 단체니까 하는 여론도 있다.

박진 : 회원조직으로 탄탄하게 가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각종 소모임으로 조직하는 구조이다. 다산에서도 '인권교육센터 들'처럼 조직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박래군 : 활동가 중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조건에 맞는 시스템, 운영, 조직 관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의 고민을 실천으로 녹여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몫이다.

가상토크

미리 보는 2032년



- 사 회 : 육성철(다산인권센터 벵바리)
- 참석자 : 난다, 랄라, 오렌지가 좋아(이하 오렌지), 허기저 (다산인권센터 상임/자원활동가)
- 정 리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 회 : 제가 20년 뒤 복장으로 참석해 달라고 주문 했는데, 준비들 하셨나요?

랄 라 : 20년 뒤면 저는 52세, 아이는 23살.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해야 해요.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 복장으로 왔어요.

오렌지 : 저는 여전히 취미생활로 건프라와 사진을 들고 다닐 것이고 옷은 지금보다 세련되고 센스 있게 입으려고 합니다. 오늘을 위해 일부러 머리도 잘랐습니다.

사 회 : 타임머신을 타봅시다. 20년 전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얼 하셨나요. 저는 따져보니까 군인이었던군요.

허기저 : 대학 1학년. 그때면 3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맨붕으로 6개월을 보냈죠. 오티를 가는데 운동권 선배들이 문화제를 주관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철의 노동자>를 부르는데 그때 팔뚝질한 새내기가 저 하나였죠. 그래서 딱 찍혀서 조직화 당했어요.

난 다 : 사진이라도 보려 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아직 돌이 안 지났대요.



사 회 : 돌잔치 때 뭐 잡았대요?

난 다 : 연필 집었다는 거 같아요.

랄 라 : 저는 초중고까지 오빠부대였어요. 부끄러워요. 1992년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해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춤추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렌지 :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편법으로 부탁해서 사먹고 그랬어요. 나중에 의사가 미행하니까 반대편 건물에 가서 자판기 라면 뽑아 먹었는데 병실에 냄새가 진동해서 혼나기도 했어요.

사 회 : 여기 계신 분들이 2012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기저 : 형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전교조 선생님 만나고 형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3 때는 아예 입시를 포기했다가 재수하면서 환경 쪽으로 가자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오렌지 : 저는 사회적 문제를 멀게 생각했는데 광우병 투쟁하면서 제 문제로 다가왔어요. 수원축볼 만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난 다 : 엄마 영향이 컸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경험해 봐야 한다고, 세상을 넓게 보고 간혀 살지 말라고 했어요. <한겨레21>에 갔을 때 박진을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놀러오라고 해서 다산에 오게 됐어요.

랄 라 : 강화도 시골에 살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술 먹고 집에 안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학년 내내 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때 친구가 자기 동아리에 끌고 가서 술을 먹는데 거기 잘생긴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등록금 투쟁할 때 삭발한 오빠예요. 오빠한테 예뻐 받으려고 민중가요 노래패에 가입했어요. 그 오빠 지금 삼성에 다녀요. 저는 지금 삼성하고 싸우고요.

사 회 : 이번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나온 20년처럼 흘러간다면 2032년이 되겠지요. 그때쯤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난 다 : 지금 모습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산이 지금은 경기도에서 사실상 유일한 인권단체인데, 그 때는 다른 단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렌지 : 박진이 대권에 도전해서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난 다 : 아냐. 박진은 다른 거 하고 있을 거야.

허기저 : 다산인권센터의 역할은 바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산인권센터가 아닌 다양한 흐름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주, 여성, 장애 등 새로운 인권 항목으로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랄 라 : 진지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죠?(웃음) 저는 다산이 비합법 조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20년 뒤면 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비합법조직이 되는 거죠. 왜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조직원들이 비밀 교신하고 그러잖아요.

사 회 : 그렇다면 여기 계신 네 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20년 뒤의 나의 일상이라고 할까요?

허기저 :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전쟁,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엄청난 규모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심란해요.

난 다 : 20년 뒤면, 마흔 둘이네요.

허기저 : 20년이 지나도 마흔 둘이래.

난 다 : 초등학교 때 상상화 그리면서 한 거 말고는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만나면 망설이지 말고 할 생각이예요.

오렌지 : 박진 대통령 후보의 전속 사진사로 일하고 있을 듯합니다. 사진으로 인권활동하는 모임도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CNN인데 속은 알자지라 같은.(웃음)

랄 라 : 10년동안 돈을 엄청 모아서 여행을 갈 겁니다. 세계일주를 인권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걸 책으로 쓰고 싶지만 아마 귀찮아서 못 쓰겠죠. 그 여행을 통해 가산을 탕진하고, 남편은 퇴직하고, 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들은 23살이니까 병역거부를 하겠네요.

난 다 : 그때는 군대 안 갈 거야.(웃음)

사 회 : 20년 뒤까지 일을 하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다들 체력은 되시겠어요? 저는 오늘 좀 피곤해서 머리에 침을 좀 놓고 진행할게요. 요즘 인권위 사정으로 머리가 아프답니다.

랄 라 : 전 수전증 빼고 괜찮을 듯해요. 얼굴이 좀 더 까매지고.

오렌지 : 저는 간당간당할 거 같아요. 숨이 차오르고 지병이 많아요.

허기저 : 전 힘들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살도 안 찌고 그래요.

난 다 : 관리 잘하면 괜찮겠죠?

사 회 : 인권운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 같아요. 20년 뒤 인권운동의 이슈는 어떻게 달라질 거 같아요?

랄 라 : 빈곤,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보니 현재 이슈네요.

난 다 : '무상'에 대한 이슈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집이 인권이라고 지금은 그냥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태어난 사람한테 한 채씩 줘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 회 :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럼 인권단체는 뭐해요?

난 다 : 더 살기 좋은 집을 주라고 요구해야지요.

오렌지 :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는 20년 전에 비하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환경이나 자원문제는 좋은 세상이 와도 회복하기 힘들어요. 설사 박진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허기저 : 노인의 사회적 권리가 중요해질 겁니다. 저도 그때를 대비해 당사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버이 인권연합' 이런 거를 만들어야죠.(웃음)

사 회 : 저출산 노령화 시대가 오니까, 박진 정권도 유념해야겠지요?

허기저 : 노인도 나눠질 거 아니예요? 없는 노인과 있는 노인, 여기서 차별문제가 등장하고...

2023년, 우리는, 그리고 다산은?

사 회 : 2023년까지 다산인권센터가 살아있고 그때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 거 같아요?

허기저 : 노인 인권문제입니다. 박진이 대통령은 어려울 거 같고, 노인인권연합 의장을 맡아서 노인 유니온을 만드는 거야.

랄 라 : 후원회원을 하고 싶어요. 식당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해서 거리로 나갈 수도. '니 머리 니가 깎고 니 밥은 니가 퍼먹어라'는 구호를 외치고.

난 다 : 아동노조를 만들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좋겠어요. 아동이 총파업을 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허기저 : 예전에는 뭐 한가닥했던 사람이 다 아동이었어요. 테무진도 어렸다면서요.

사 회 : 그때는 평균수명이 삼십대였어요.

오렌지 : 후원회원으로 남아 있을 거 같아요. 아마도 빈곤의 당사자일 테니 빈곤 연대 같은 걸 하고 싶어요.

허기저 : 20년 뒤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과도기적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권이 바뀌면 기존 NGO 활동가들을 공무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박진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들어가야 하나?

사 회 : 20년 뒤 누군가 다시 백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타임캡슐에 남기고 싶나요?

허기저 : 제 스스로한테 던지는 말이기도 해요.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남한테 철저히 자기한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는 관용적이고 자기한테는 철저히 좋겠다."

랄 라 : "청소해라. 사무실 좀 깨끗이 해라. 사무실에서 밥 잘해먹고 정리정돈 잘해라."

난 다 : "말로만 하지 말자. 행동으로 보여라."

랄 라 :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만큼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하자." 이것도 추가합니다.

사 회 :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동료들에게 주는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는 뭐뭐 뭐 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허기저 : 박진은 나처럼, 나처럼만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렌지 : 난다와 청소년 활동가들은 '안 끈대' 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난 다 : 허기저는 술처럼...

허기저 : 됐어. 됐어. 막 던지지 마.

난 다 : 허기저는 쪼여가지고 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 풀어지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랄 라 : 오렌지는 어린 왕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잖아요. 오렌지가 나를 좀 기다리면서 '어디야?' 하고 물었으면 좋겠어.

박진 : 랄라는 마녀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



잠옷 토크?

유이

유이 :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계기로 들어왔어?

메달 : 간단하게 대답해도 돼?

유이 : 안 돼.

메달 :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7년 1월인 거 같아. 서울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정리한 뒤 학원에서 1년 정도 일했어. 그러다 서울생활이 너무 지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어. 그럴 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곳이 수원이었어. 사실은 박*이 꼬셨고.

유이 : 그러면 5년 정도 활동한 건가?

메달 : 아니지, 2007년 1월부터 활동한 거니까 6년이지.

유이 : 6년동안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메달 :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유이 : 가장 힘들었거나, 가장 기분이 좋았던 사건 없어?

메달 : 사건은 아니고, 3주 동안 나 혼자 홍콩 가서 아시아 활동가들을 만났던 경험이 가장 좋아.

유이 : 홍콩에 왜 갔는지, 뭘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지~

메달 : 아시아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홍콩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열어. 근데 처음에는 박*이 간다고 했다가, 한 2주 전인가 갑자기 나한테 가라고 해서 가게 됐어. 근데 준비 없이 가게 돼서 처음엔 두렵고 힘들었어. 하지만 나중에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나의 인권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유이 :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메달 : 우선 지금 준비 중인 인권교육센터 독립이 잘됐으면 좋겠어. 무겁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공간.

유이 : 자신의 인생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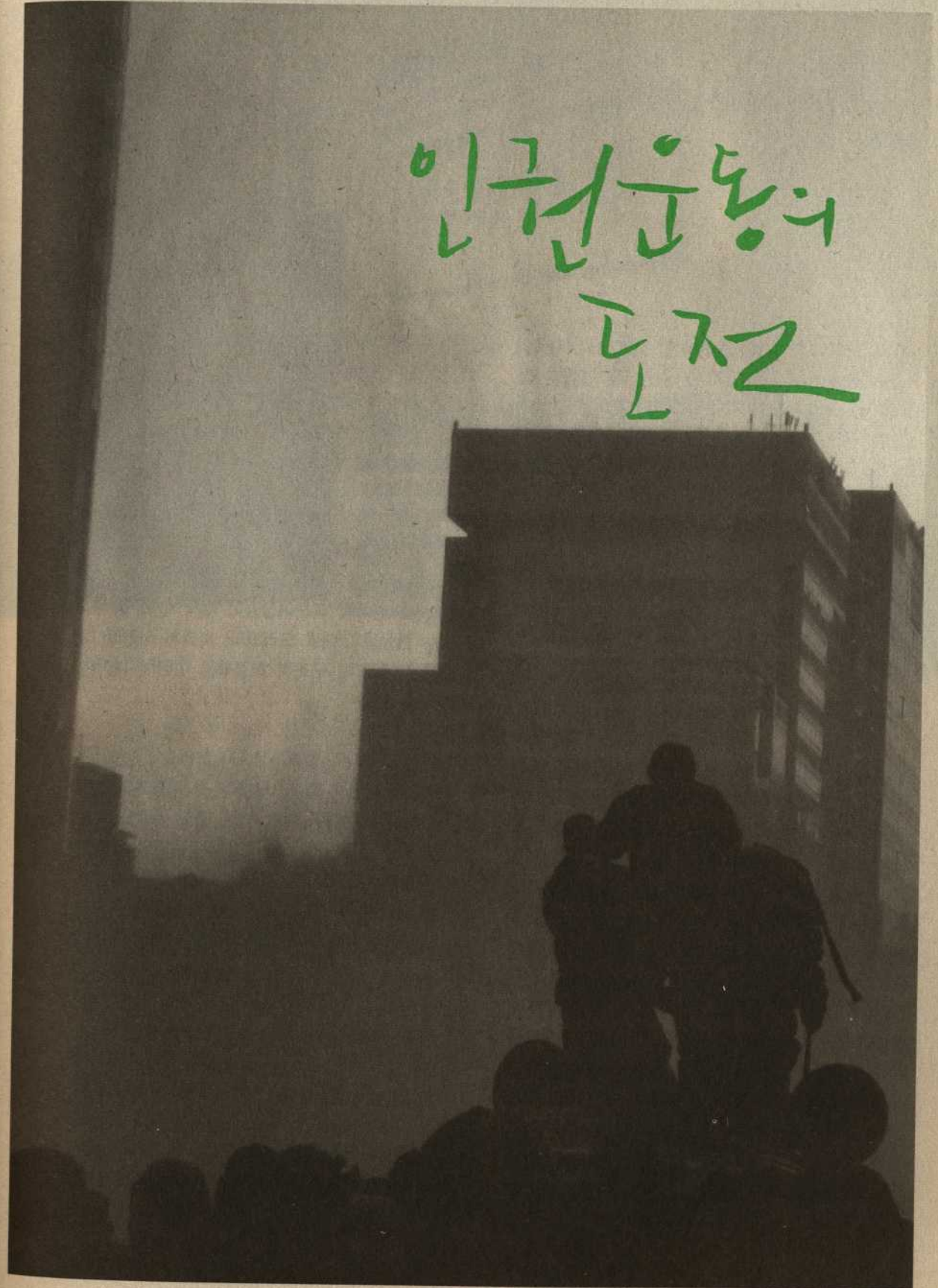
메달 : 그냥 제 2의 가족이라고 해야 하나, 왜 가족이 늘 좋지만은 않잖아. 힘들지만 함께 가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일도 있고, 함께 해 나간다는 점도 좋고, 그런 거? 가끔은 놓고 싶기도 하지만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족 같은 존재.

유이 : 마지막, 다산인권센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자원활동가, 상임활동가, 베타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메달 : 우선 자원활동가들한테는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인생사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게 잘 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분위기나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미안해. 조금만 더 상임활동가들이 손을 내밀기 전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각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술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면 좋을 것 같아. 베타리들에게는 항상 감사드리고, 든든한 다산인권센터의 뿌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베타리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20주년에도 베타리들이 곳곳에서 도와주고 계셔. 우리를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이 : 그래. 이제 그만하고 자자.

유이님은 메달님의 동거인이자, 짝꿍입니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비상대책위원회의 멤버이고, 자전거시민학교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대전환, 지역 이슈를 전국 이슈로
김철준

자식이 성인이 되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자식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감상적인 표현으로 '다산인권센터'는 내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 다산인권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이다. 그리고 '그 사람, 스무 살'이란 제목으로 생일잔치를 한단다. 그러니 이 지면을 빌려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아무진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온전히 성인이 된 다산을 받아드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건의 시각에서 인권의 시각으로

지금의 다산인권센터는 1992년 8월 법무법인 다산의 전신인 다산합동법률사무소에 '인권상담소'를 개설하면서부터 시작했다. 다산이 감당하던 사건의 상당수가 노동문제, 인권문제, 지역의 사회적 현안이었고, 이것은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서 해결하기에 명확한 한계를 품고 있었다. 때로 변호사로서 법정 안팎을 넘나들어야 했고, 변호사 사무실과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였다. 심지어 변호사 스스로 활동가가 되어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했던 일들도 허다했다. 결국 국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법정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싸우다 보니 사건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기 보다는 '인권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다산인권상담소'의 탄생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인권상담소의 시작은 개인법률사무소의 한쪽에서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결코 한 사건이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 것'이라는 말처럼 피해자 개인이 인권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며 건넨 사건 하나하나가 당시 인권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되풀이되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인권의 현주소였고, 이순심 사건과 정미숙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변론은 제도적,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경기 용인 수지지역 철거과정에서 화염으로 인해 투신 사망했던 신연숙 열사 사건부터, 사제총까지 등장했던 수원 권선 3지구 철거 사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던 구갈지구 민병일 열사 사건, 용역의 무리한 철거 작전에 내몰렸다가 사망에 이른 오산 수청동 사건 등 끊이지 않았던 철거 사건들은 인권이 운명적으로 빈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현상이었다.

또한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위치추적 사건, 노조결성을 이유로 한 무수히 많은 부당해고 사건, 백혈병 등 삼성의 직업병 사건 등 거대한 포식자 같은 삼성과의 싸움은 다산이 인권에 있어서 결코 양보나 지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치사 사건과 평택 예바다 사건을 통해 인권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임이 밝혀졌고, 박석진

등 양심선언 전의경 사건과 천리마 노래패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야만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인권상담소'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디딤돌 기능을 해주었고, 나아가 생소하기까지 했던 '인권'이라는 단어를 법조계에 직접 접목시키는 구실도 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보편적인 우리의 권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한 부서에서 시작한 인권상담소는 이후 '법률 사건 속의 인권'을 고민하는 수준에서 진화해 '인권 그 자체'를 고민하는 다산인권센터로 발전했다. 이미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벌어진 인권침

해를 구제하고자 했던 법률 싸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도와 인권을 지켜나가는 인권 도우미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지킴이라는 지금의 자리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인권상담소의 위상이나 인권센터로서의 임무만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현장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경기 남부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사회를 인권의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바라보며 20년 세월을 거왔다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20년은 좀 더 과감하게 지역인권 이슈를 개발하고, 지역으로부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 활동가로서 인권을 고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한다. 인권이 지역과 만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권운동도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 운동이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슈 파이팅 중심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인권활동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역 이슈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싸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일상적 인권 이슈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그들이 다시 인권옹호자가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의 주인이 되고, 그 터전 위에서 시각을 넓혀 보편적 인간의 삶을 모두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때, 지역 인권운동은 보편적 인권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인권센터의 경우 그 시작은 노동과 인권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수원 등 경기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라북도 부안하면 지역운동 이슈로 '반핵'을 떠올린다. 제주도 지역운동은 당연히 강정마을의 구럼비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수원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이슈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전국 이슈로 끌어내는 안목을 키우자는 의미다.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들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 활동가들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루 43명씩 자살하는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8년째 '자살률 1위', 한마디로 기가 막힌 기록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자살과 입시 경쟁 등 아이들의 삶의 질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초고령 사회가 목전에 다가왔다. 그럼에도 사회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이나 하는 인식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모든 주제가 지역의 현안이자 전국적인 의제이다. 인권 의제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다. 인권 활동가의 시각에 따라 전 사회가 같이 고민하는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구상이다.

인권상담소를 열 때만 해도 '인권'이라는 단어의 뜻은 명확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은 어떠한가. 과거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하며 더 많이 실천해야 한다. 다산인권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길은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인권상담소 개소식에서 우리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목소리 높여 불렀다. 돌이켜 보면 무슨 선견지명처럼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여전히 노래 가사 속의 다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린다. 끝으로 이 노래를 이제 성년이 된 다산인권센터에 선물하고 싶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솔하게 느껴졌던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방향을 잃었을 때는 초심을 기억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는 지나온 20년의 여정을 기억하며, 새로운 20년의 돌파구를 만들기 바란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 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 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주자.(중략)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김철준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권운동의 미래

이야기 손님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2012년 다산인권센터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동안 인권의 이름으로 수많은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활동해 왔다. 20년이 지닌 무게감과 고민이 가벼울리 없어, 오늘도 우린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 무게에 대해,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야 할까에 대해. 딱 맞는 답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살아간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다. 류은숙님도 본인의 인권운동이 20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한다.

"지금은 권력이라고 유세 떠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해요. 짓밟는 것도 권리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강자들이 권리라는 말을 써요. 권력관계에서 시소가 기울어진 상태의 권력게임인데도 1대 1의 대등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일종의 착시효과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자의 파업권 대 기업주의 대항권을 같은 권리인 것처럼 왜곡해요. 마치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자들의 권리 다름을 끌고 가는 링이 있어요. (중략) 링은 다양해요. 교실, 부엌, 작업장, 백화점 등 무수히 많아요. 그들은 링을 엄청나게 제한해요. 오직

법정이라는 링만 고집하고, 모든 권리 다름을 법 앞으로 끌고 가요.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눈감아주는 심판이 있는 링으로요. 간혹 약한 자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약한 자들은 긴 시간과 노력을 법정에서 투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강한 자들이 유리한 게임이죠. 법정으로 한정하는 게임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법을 따른다고 해도, 그냥 신고 조항일 뿐이지요. 경찰하고 싸울 때도 법의 언어로 싸우려고 해요. 일상화 되어있고 침투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언어로 싸우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싸움의 링을 개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들이 하는 습관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법의 언어를 탈피해야겠지요."

"중앙의 의미는 바뀌었어요. 현장이 바로 중앙이지요. 문제가 벌어지는 사건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중앙과 변방의 경계를 깬어요. 이런 걸 깬 게 너무 좋아요. 기성 언론과 아마추어의 경계도 없어요. 이제 기성언론 글발이 안 먹혀요. 맨 앞에서 경찰의 발길질을 당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싸움을 통해 얻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방이 있어요. 그것이 인권운동이 주목해야 할 곳이지요. 예전의 소외받던 사람과 폭발적인 언론의 다양화가 벌어지는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의 질은 달라졌어요. 신문에 담기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외는 더 깊어졌어요. 저는 변방을 떠받드는 것이 인권운동이라고 봐요. 예전부터 인권운동을 하면서 의제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면 그 다음은 놔두고 도망가는 것이 인권운동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과도에 오르면 놔둬도 누군가 하거든요. 그럼 인권운동은 다시 소외받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거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사업이다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타성이 되는 거죠. 탁 버리고 황무지를 찾아가는 게 인권운동이라고 봐요. 볼멘 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변방을 중앙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을 권력자로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자 우리 모두의 평등입니다. 그 삶 속에서 실현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통일된 삶이 바로 다가오는 삶이라고 봐요."

다산 사람들은 류은숙님의 이야기에 백배 공감했다. 20년 동안 다산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 이 지면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연대'의 이야기도 있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연대 말이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빼앗기고, 힘없는 이들과 교감하고, 함께 하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일 듯하다.

"인권운동이 추구하는 연대는 지금을 넘어서는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같이 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놈의 현실주의 때문에 시궁창이죠. 우리는 지금을 넘어서는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연대를 꿈꿔야 합니다."

다산이 걸어온 20주년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다산의 20년 뒤를 상상해 본다. 어떤 세상이어야 하겠는가?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운동이 없는 세상이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욕심 내지 않고, 빼앗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다.

이야기 마당 들,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서공업



노동과 인권의 기억할만한 마주침!

초대 손님 :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건준(금속노조 경기지부)

누군가가 크레인에 올라가 300일을 버텨야지만, 누군가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천일이 넘도록 농성을 해야지만,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한번 쳐다보게 된다. 정리하고에 맞서, 부당징계에 맞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자존심과 권리를 위해 노동자들은 싸운다. 그렇게 인간이길 포기하고 싸워야만 간신히 인간이길 부여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간신히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모든 노동하는 이들에게 부여돼야 할 그 노동인권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 걸까?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노동을 바라보고 연대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님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님을 모시고 노동과 인권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다산에서 이후 어떤 노동인권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노동관련 활동단체를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혀 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권리가 나의 것이란 걸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권리 의식의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노동과 인권의 만남 속에서 그 권리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파업과 투쟁 속에서 폭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만 대응해 왔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이 곧 권리의 문제임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깨우치는 과정이다. 이러한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저항으로 나가야 한다.”

“기업과 권력의 실체는 숨어버리고 깃털만 남는 세상이다.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대패질한다. 무엇보다 권리 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을 폄하하는 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순응해버린다.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 필요하다. 노예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의 주체, 생활의 주체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문턱이 낮은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누구든 쉽게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해야 한다. 생활권과 문화적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과 인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아래로부터의 연대, 문턱 낮은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권리의 중요성, 노동과 인권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노동과 인권의 만남을 통해 삶의 조건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다. 앞으로 다산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였다. 다산도 꾸준히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함께 해왔다. 현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키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엮어 책을 만들기도 했다. 다산은 지금도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앞으로도 다산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노동과 인권이 만나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민들이 이번 이야기 마당을 통해 좀 더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성의 말살을 목격해 왔다. 비정규직은 통근버스에서도 서서 다니고 식당 티켓도 달랐던 어떤 회사, 식사 시간이면 화장실 한 귀퉁이에서 밥을 먹어야 했던 청소 노동자, 죽어야만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노동현장으로 뛰어든 청소년 노동자들….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들의 삶에 대한 권리, 일상에서의 차별, 각박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노동문제’만으로 설명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노동’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 나아가 ‘인권’을 이야기해야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노동과 인권의 마주침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의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 권리 의식을 잃어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대패질하는 노동자와 이 사회의 현재 모습.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의 삶보다 일에 얽매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인권’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인권운동과 지역운동이 만났을 때

이야기 손님 : 임혜경, 김광원, 안용정(이상 참여예산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안에서 지역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과연 우리는 지역운동을 하는 곳이 맞나?"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다산의 지역운동을 풀어내야 하는 것인가?"까지. 그 고민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온 지역운동포럼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운동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한데 담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양각색의 활동가들이 만나 지역의 의제를 공유하고 지역운동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운동포럼을 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다산과 지역운동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다산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참여예산 활동을 하고 계신 임혜경, 김광원, 안용정 님을 모시고 다산이 생각하는 지역운동,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터지는 현안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인권운동이 지역운동과 어떻게 만나고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는 늘 고민이었다.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보편적인 지역 의제로 확장시키고, 풀어내느냐 또한 어려운 숙제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의 확장도 지역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현재 다산이 풀어내고 있는 운동의 방식들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그 문제들을 함께 할 이들을 만들어내고,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다산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손님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풀뿌리 운동은 고정된 운동이 아니다. 자발성을 갖고 느리게 삶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인권운동의 모든 영역이 풀뿌리 운동일 수 있다. 노동운동도 인권운동도 마찬가지다. 풀뿌리 운동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론으로만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 운동을 성찰하고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풀뿌리 운동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인권은 가치의 운동이다. 풀뿌리 운동은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슈를 찾다 보니까 불온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구체성에서 생각하는데 가치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주민들과 만나는 게 사실 어렵다. 지역에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신뢰이다. 풀뿌리 운동이 장기적 과정을 통해, 가치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환하고 나면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접점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 믿고, 같이 관여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심어주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히 인권운동은 풀뿌리 마을 운동과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을 남기고 싶어하는데, 그보다 먼저 '사람을 남기는 방식이 뭔가?' 라는 고민을 제대로 했냐에 대해 돌이켜 봐야 한다"

"산업화를 겪고 사회가 바뀌어서 풀뿌리 공동체 가치가 사라졌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게 풀뿌리 운동이다. 다산의 활동가 중심 방식과는 다르다. 다산이 조직 자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풀뿌리 운동 지역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좋은 가치로 받아들일 것이냐, 풀뿌리 단체를 지원할 것이냐, 단체를 해체하고 풀뿌리 운동을 할 것이냐. 다산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운동하면 주민운동과 풀뿌리 운동을 떠올렸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민들을 당장 만나야 하는 조급함이 먼저 생겼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풀뿌리 운동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다산의 인권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장 다산이 지역운동, 풀뿌리 운동, 주민운동으로 전환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다산이 지향하고 행동해 온 바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체가 되는 운동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흩어져버린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돈독하게 할 것인가?, 인권의 가치들이 흘러넘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이 지역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풀뿌리 운동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고민보다는, 다산이 가진 가장 큰 힘인 인권의 가치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인권교육, 바람이 되다

메달

맨 처음 다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시작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 다만, 20년 동안 담겨진 인권교육의 발자취가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인권교육은 인권운동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동안 인권운동과 인권교육은 서로 밀담을 하면서 발걸음을 함께 했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에 기운찬 펌프질을 해서 다시 뽕뽕한 자태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인권교육의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완전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세를 걷고 있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인권교육이 뭉기에 이렇게 대세를 걷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 능력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니 좀 세련되게 정리한 글을 참고할게요. 인권교육이 뭉까?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인 양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인권교육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이 당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 ‘역량 강화’ - ‘자력화’ -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교육은 인권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중)

인권교육을 만나면서 이것만은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있어요. 일명 인권교육의 삼발이라고 하는데,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원칙이죠.

첫 번째 ‘인권에 대한 교육’은 말 그대로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 뜻부터 역사까지 인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권적이지 않은 환경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지녔던 기존의 가치들과 인권의 가치들이 충돌을 빚는 공간이 바로 인권교육의 장소예요.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거나,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몇 백 명을 강당에 몰아넣고 즐기고 있는 학생을 깨워 나무란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인권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정말 많은 인권교육 의뢰가 들어왔는데,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는 있지만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학교 속에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인권을 위한 교육’입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인권적이지 않은 지점들을 인권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공간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책상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인권 이야기가 필요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인권교육은 가능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을 통해 교육하고 그것이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산인권센터는 그 동안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교육을 해왔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에이 너무 속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걸요. 이게 사실인 것을.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보내온 알토랑 같은 20년을 품에 안고 인권교육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오해를 극복하고, 인권교육은 책상머리에서만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려고 합니다. 인권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교육으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는 5명이 있구요. 크게 청소년 인권교육, 장애 인권교육, 노동 인권교육 세 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인권교육 ‘바람 길’의 안내자가 되실 분 어서 오세요.



메달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새로운 인권운동,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안병주



우리는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권 '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인권이 억압 당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인권의 관점과 기준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조지 버나드쇼의 표현대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 시대,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려는 열도당토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20년을 보냈고, 앞으로도 20년을 '비합리적인' 태도로 살아낼 사람들이다.

도전 받는 인권운동

현재의 인권운동이 직면한 도전 중 한 가지는 '제도화'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고 또 수정해왔다. 인권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의 의제들이 '제도화'를 단기적 혹은 장기적 목표로 진행해왔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 상의 권리였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은 이런 현실에 맞서 싸웠다. 싸움의 결과는 헌법에 근거한 법 제도 개선이었다.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모든 것을 제도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법과 제도였다. 또한 권력을 한 줄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들과 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법과 제도의 껍데기를 쓰고,

'인권도시'가 유행이 되어 버렸다. 광주에서 선점(?)한 인권도시 프레임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표준안' 마련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실효성 논란에도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수원시의 경우도 '휴먼도시'의 핵심이 인권이라며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이 과정에 인권단체는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인권'. 그 앞에 벌어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은 지난 20년과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종이 속 단어로만 수렴되는 인권은 무기력할 뿐이다. 우리가 거기에 글자 하나 더 보태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갈등한다. 우리는 이것을 20년 인권운동 역사의 결실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라 부른다.

법과 제도에 가로막힌 인권은 그 제도를 바꾸는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소외를 만들고, 정치권력과 자본의 공격 앞에 무기력해지거나 착취와 억압의 포장지 구실을 할 것이다.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다. 이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프로세스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화의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로 인해 환경운동이 성장했고, 이제는 누구나 '환경'과 '생태'를 주장하지만 이 또한 권력과 자본의 먹잇감으로 변한지 오래지 않은가.

법과 제도는 태생적으로 시혜의 역사다. 물론 기나긴 투쟁과 저항의 역사를 반영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항상 법과 제도에서 비켜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인권은 법과 제도로 수렴되지 않는 삶에 대한 질문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인민들의 투쟁과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물리적 억압과 법과 제도로의 수렴이 바로 그것이다. 인권운동은 '제도화'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권리를 담지한 인간에 대한 사유와 그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이를 제거한 법과 제도는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철거민 4명과 경찰 특공대 1명이 숨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등으로 해고된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죽어간 23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살인적인 입시경쟁 교육과 학교폭력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청소년들, 오늘 하루에도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제도로 수렴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제거 대상이다. 스스로 삶을 제거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영광(?)은 언제나 대한민국이다. 가장 극단적인 죽음으로 제거당하는 사람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제거당한 혹은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부적응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체제에 적응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변신하는 길 밖에 없다. 아니면 제거당한다. 누구에게나 법적인 평등함이 보장되지만 그것의 기준은 '합리적인 사람' 뿐이다. 합리적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학교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거기서 탈락한 부적응자들을 관리한다. 관리를 거부하거나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 제거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인권운동은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도대체 합리적일 수 없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우리의 슬로건은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불온하다. 우리는 제거당하는 혹은 제거당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저들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다. 붉은 색 알약을 선택할지, 푸른 색 알약을 선택할지 혹은 그 선택마저 거부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빈곤과 가난에 관심을 갖는 이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문제'로 환원시킨 저들의 논리는 확고부동하다. 경제는 경쟁의 다른 말이다. 여기서 탈락하면 앞서 이야기한 제거 대상이거나 최소한 관리대상이 된다. 관리는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격리의 의미다.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 혹은 그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적응에 대해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 여기서 '인권'은 고작 '재산권'으로 소급되어 버린다. 사회적, 경제적 권리는 없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게 된다. 민주주의는 '경제논리'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횡행한 이유다. 우리가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총체적 거부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은 아직도 요원하다. 인류 역사 속에서 빈곤과 가난은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빈곤의 집중과 악순환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총체적이고 지구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이다.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임과 동시에 빛에 목숨을 저당 잡힌 노예나 다름없는 삶이다.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살이라면, 자살 또한 저들이 원하는 제거의 방식이다. 청소년 자살을 예방한다고 창문을 걸어 잠그는 짓을 하는 저들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열하게.

안병주 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에스제이엠 SJM CO., LTD.

노동자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SJM 투쟁

2012년 7월 25일 새벽 4시. 200명의 용역경비에 의해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피를 흘렸던 그 시간. 경찰은 피 흘리며 쓰러진 노동자들을 외면했고, 정부는 합법적인 직장폐쇄라며 회사 편을 들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났고, 거리에서 두 달을 버텼다. 아니 버텼고, 드디어 공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한다.

다산은 쌍용, 유성, 한진에서 벌어지는 용역폭력을 끝내기 위해, 인권단체들과 함께 반용역프로젝트보고서를 작성했다. 짓밟히는 철거민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용역폭력에게 유린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 작업이었다. 이런 경험 덕분에 SJM 용역 청부폭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 현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용역경비들의 인권침해 문제에도 접근해 보았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참하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눈을 돌릴 수 없다."는 용역경비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기사를 본 뒤 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다산은 인터넷 <프레시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연재했다. 현직 교사, 정년퇴직 대학교수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가 그들을 만났다. 아직도 '회장님'이라 부를 정도로 노사관계가 좋았던 회사에서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 부품이 머리통을 깨는 무기로 둔갑할지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9월 1일엔 난장을 준비했다. 틀에 박힌 집회나 지루한 발언 대신 그야말로 놀자판을 만들었다. 공장에서 쫓겨나도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실컷 놀았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말춤까지 추면서. 그렇게 만든 '노동자 스타일'은 한마디로 대박이었다. 연습할 때는 주눅주눅 어색한 몸동작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난장 당일엔 누구하나 빼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영광의 말춤을 신나게 쳤다. 결국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회장은 노동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간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7월 25일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졌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 했던 노동자들의 말은 비단 SJM 노동자들의 목소리만은 아닐 것이다. 그 현장에서 다산인권센터는 변함없이 함께 있을 것이다. 전처럼.



〈두 개의 문〉 주연배우 박진의 아주 특별한 프로필
레이

레이가 묻다 : 하고 싶은 말 하는 시위대를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 때는 경찰들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문〉의 시선은 참 신선했거든요. 경찰이 '정부의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기도 했고... 영화의 주연배우로 출연하셨는데, (지금은 수정되었지만, 포털 사이트 네**에 여배우 검색을 하면 〈두 개의 문〉 주연 배우로 띄웁니다! 지금은 '배우'가 아니라 '화제 인물'란에 있네요.) '경찰'에 대한 시선이 영화 출연 이전과 딱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가졌던 생각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건가요?

박진이 답하다 : 사실은 그전에도 공권력의 방패 앞에 설 때마다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분노에 차올라 욕지거리를 해대다가도, 방패 너머에서 진땀을 흘리는 경찰의 모습. 헬멧 안에서 흔들리는 눈빛. "너는 누구냐?" 하는 생각이. 용산참사 진상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영화 찍기 전에 감독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출연의 계기가 되었지. 결국 힘없는 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 〈두 개의 문〉, 용산참사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나. 그러나 방패를 든 그 순간만큼은, 그들도 결국 공권력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쭉. 그래서 감시하고 나무랄 수밖에.

레이가 묻다 : 예전에 〈한겨레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사진이 기억납니다.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철문에 쇠사슬로 몸을 묶어 경찰을 저지하던 모습이었지요. (참고로 그때 입었던 옷이 아마 공권력 대처 시 입는 작업복이라던가 뭐라던가...) 뭐 아무래도 대다수 인권활동가들이 경찰과 대처하는 일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인권활동가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철심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문〉에서 경찰기동대 대원들이 겪었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포가 없을 리는 없겠죠? 투쟁 현장에 가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극복했다면 어떻게 했고,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면 현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박진이 답하다 : 많이 뛰어다녔죠. 음. 대추리에서 쇠사슬에 몸을 묶은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갈 때였고, 신문에 났던 날은 교문 사이로 내 팔을 집어넣어서 팍 잡고 있을 때죠. 경찰이 내 팔을 잘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도록 아주 단단히(웃음)... 현장에 가

면 무섭죠. 왜 안 무서워. 무섭지. 극복이 아니라, 늘 무서워하면서도 발부터 디밀고 마는 무모함. 뭐 그런 거라 생각해요. 결국 죽기밖에 더 할까. 사실은 어느 순간, 죽는 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 그런 맘이 들었는데, 그 답에 죽는 거 빼고는 다 무섭더라고.

레이가 묻다 : 질문자도, 답변자도, 그리고 이 인터뷰 글을 읽으시게 될 분의 일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100% 소수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류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뭐 별로 문제될 일도 아니니 민망해하지 마시고, 인권활동가이지만 그래도 스스로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내 안의 반인권적 요소는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하하하)

박진이 답하다 : 우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그리고 박진. 이렇게 좁혀서 보면 솔직히 소수자로 규정할 수 없죠.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8만 명에 육박하는 영화에도 출연하고(웃음). 인권단체 중에서도 이주민, 철거민, 장애인 단체들, 참 많은데, 어쨌든 다산인권센터가 기자회견하면 다른 곳보다 기자 동원력도 높고 말이죠. 한마디로 마이크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다른 곳에 퍼져야 한다고 봐요. 우리 만큼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잠깐 뜬 들이고) 난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그런 건 좀 봐주면 안 되나? 너무 말 많고, 목소리 크고, 만날 때마다 여성 외모 얘기만 하는, 또는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첫 인상에서 마음에 안 들면, 대할 때 좀 차별해도 되잖아? 운동한다면서 밥그릇 찾는 사람들,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개인적으로 열정 없는 삶도 싫어.(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반인권적 요소? 왜 없겠어. 그건 비밀로 해야, 인권활동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나, 생각보다 못됐다. 중요한 건 자주 변하는 거 아닐까. 자신의 반인권과 싸워서 바뀌는 것. 물론, 외모 지상주의자라는 건 다 아는 비밀이지만. 조인성 좋아하는 거, 그것도 좀 봐주면 안 되나?

레이는 다산인권센터 벵바리입니다.



현장 르포

대추리, 그 후



대추리, 대추리 사람들

육성철

2007년 4월 7일. 대추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대추리를 찾았다. 참석자들은 황새울, 곤주머리, 도두리 벌을 내려다보던 문무인상 앞에서 고사를 지냈다. 마을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문무인상을 태우고 꽃배와 만장을 든 채 대추분교로 향했다. 그리고는 대추분교 운동장 가운데에 구멍이를 파고 대추리 주민들의 소원이 담긴 향나무 판을 묻었다. 이를 뒤 대추리에 남아 있던 10여 명의 지킴이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대추리 투쟁은 5년 여에 걸친 고난의 여정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대추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눈을 비벼가며 당시 상황을 더듬어 보고 싶었지만 허허벌판에서 기억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시멘트 장벽과 철조망 너머에선 황토 먼지만 자욱할 뿐이었다. 저곳이 과연 30만 명의 식량을 생산하던 옥토였는지 가능할 길이 없다. 주민들을 전광석화처럼 쫓아내던 모습과 달리 그토록 중요하던 미군기지의 형체는 요원하다.

대추리, 노와리, 신대추리

차를 돌려 20여분쯤 달리면 평성을 노와리다. 행정구역 지명은 노와리지만 마을 입구엔 '평화마을 대추리'라고 적혀 있다. 대추리 이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이라 해서 '신대추리'라고도 불리나 마을 사람들은 '대추리'를 고집한다. 벌써 수차례 관계기관에 마을 명칭 변경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았다. 미군기지 부지에 대추리 지번이 살아있는데다 일부 노와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탓이다. 그런 이유로 대추리 사람들은 노와리에서 '신대추리' 사람으로 살아간다.

평화마을 대추리를 알리는 장승 사이에 표지석이 있고 그 아래 류연복 님의 글이 새겨져 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또 다시 고향 땅을 빼앗겨 이곳에 등지를 틀지만 대추리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평화의 마음은 영원하리.' 뺏속까지 대추리의 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을 명칭에 대한 애착은 일종의 자존감이다. 그들에게 사라진 대추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땅인 셈이다.

펜션 타운을 연상케 할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 길을 걷다가 김지태 씨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대추리 싸움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를 무렵 이장을 맡아 투쟁의 한복판을 지켰다. 체포, 구속, 실형의 시련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마을을 지켰다. 그의 투박한 한마디는 어떤 논리보다도 강렬했다고 주민들은 회고한다. 대추리 싸움을 보상금 요구 수준으로 변질시키는 외부의 시각에 그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그대로 살겠다. 땅값이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지태 씨는 대추리의 기억을 묻는 질문을 에둘러 피해갔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그는 "요즘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물음에도 "그냥 산다. 사니까 사는 거다."라고 답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에서 자동차로 40-50분 걸리는 논을 날마다 드나드는 농부의 심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추리 이장은 2007년 2월부터 신종원 씨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김씨는 2006년 구속될 때부터 이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추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김씨를 이장으로 부른다. 지난 5년 사



이 대추리가 걸어난 변화와 무관하게 대추리 바깥사람들의 시계는 5년 전 그날에 멈춰 서 있다. 서로의 경험 이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차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다.

김씨는 걸으로 대추리 싸움을 잊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회한마저 지우지는 못한 듯 하다. 그는 2년 전 우연히 공사 중인 고향마을 쪽으로 들어갔다가 씩씩한 기분으로 돌아선 적이 있다고 고백 했다. 미군기지이건 국책사업이건 그런 거창한 문제를 다 떠나 고향이 시야에서 사라진 탓이라고 했다.

대추리 싸움에서 김씨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이 그의 부모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들은 오랜 싸움 속에서 강인 한 투사로 변신했다. 그러나 5년 사이 노부부는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이다. 스무 살에 시집 와서 50년을 살다가 쫓겨난 황필순 할머니는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대추리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인 김지태 이 장이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 황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는 지금도 심금을 울린다.

“우리 아들은 무뚝뚝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고, 자신이 옳다고 맘먹은 것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하라고 말한 번 한 적 없고,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이랑은 아직도 뽀 뽀하고 텅굴곤 하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망다니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태는 불구속이 되더라도 재판정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믿지, 어디를 도망 다닐 사람은 아닙니다.(중략)

퇴임 후에는 조용히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는 그 대통령이 왜 우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땅을 지키며 농사짓겠다는 아들을 구속시키는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판사님, 제발 우리 아들을 두 아이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 늙은이들 곁으로 돌려 주십시오. 불구속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판은 진행될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황씨는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다.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2006년 3월 6일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쇠사슬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버티던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모습도 또렷이 기억했다. 당시 꼬마였던 인권활동가의 딸이 6학년이 되었다고 하자 “벌써 그렇게 많이 컸냐.”며 반가워했다.

김지태 씨를 따라 논으로 갔다. 노와리로 이주한 44가구 가운데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단 2가구다. 주민들 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평택 인근의 비싼 땅을 살 만큼의 돈은 아니었다. 오히려 빚을 내어 터를 닦 고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 실제 보상금으로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집이 무려 17가구나 됐다. 부쳐 먹 을 땅조차 없는 시골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공공근로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내년 11월이면 예산이 바닥나 대추리의 생계수단이 사라질 판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더욱이 논농사는 자주 오가며 미세한 변화를 살펴 야 한다. 그러나 김지태 씨와 신종원 이장은 그렇게 농사를 짓지 못한다. 보상금을 다 털어 충남 당진과 서산 까지 내려가 겨우 농토를 마련했다. 평택의 농부들이 천안에서 못자리를 만들고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모 를 심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속사정이다.

충청도로 간 대추리 농부 3인방

대추리의 두 농부는 트럭에 모를 싣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혼자서 일하자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작업이었다. 다행히 범민련 경인연합 회원 20여 명이 농활을 나와 일을 거들었다. 주말을 맞아 1박 2일 일정 으로 평택에 내려온 김광범 씨는 “대추리 농부들이 두 번 썩이나 자기 땅을 잃고 쫓겨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종원 이장은 5년째 대추리 이장을 맡고 있다. 그도 김지태 씨처럼 대추리 싸움의 트라우마를 흑독하게 겪고 있다. 언젠가 한번은 무심코 집으로 차를 몰았는데 가보니 대추리 공사장 앞이었다고 한다. 머리로 쳐다보기도 싫은 상처 투성이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대추리로 이끌렸다고 한다.

평택농민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농촌이 쇠락하는 현실에 매우 민감하다. 배운 게 농사뿐이지만 그에겐 생업을 넘어서는 외침이 있다. 절대농지를 미군기지로 만든 폭력에 맞서 미국 농업과 한판 싸움을 벌이기 위 해서라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내 민족의 식량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의욕도 내비쳤다.

그러나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집에서 논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면 이미 농 업이라기보다 유통업에 가깝다. 신종원 이장도 “맨날 손해보고 계속 가지면서 길바닥에 흘린다.”며 아쉬워했 다. 남지도 않는 일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농부의 힘은 무엇일까? 대답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논에서 머물 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그런 이유로 2007년 이주하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하던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다.

5년째 대추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요즘 마을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대추리의 생계수단을 만드는 동시에 대추리의 역사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신종원 이장의 머릿속에서는 이 미 대추리 농기계창고 안에 평화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의욕만 갖고는 쉬이 진행되지 않는 다. 그래서 그는 대추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킴이들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시 2007년 4월 7일의 풍경을 되돌아본다. 신종원 이장은 대추리 주민들의 절규가 담긴 향나무 판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다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이제 묻고 나면 언제 다시 찾아와 읽을지 기약할 수 없는 통곡이었다. ‘황새울아 우리 다시 돌아온다 꼭 온다’, ‘우리가 빼앗긴 땅 후세에서 꼭 되찾도록’, ‘잊지 못할 나의 고향 대 추리여’, ‘앞으로 잘살고 자식 손주 잘되게 해주고 우리 땅 꼭 찾게 해주세요’, ‘대추리 떠나기 싫다’...

당진 들녘에 해가 졌다. 새벽부터 서둘러 겨우 논에 모를 옮길 수 있었다. 논두렁을 부지런히 오가며 모의 상 태를 점검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장님에게 대추리는 무엇입니까?” 무문에 현답이 돌아왔다. “내 삶의 전부요.” 그는 대추리에 삶을 걸었다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빛이 들어차 미군기지가 사라지는 날, 그는 당 당하게 “대추리는 우리 땅이요.”라고 요구하겠단다. 자기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꼭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2012년 9월 8일 대추리 주민들은 황새울기념관과 대추리 역사관을 열었다.

육성철 님은 다산인권센터 벤틀리입니다.

오년의 추억

제주 강정에서 서울 용산까지

유승하



2009년 용산

막무가내 진압으로 철거민 50명 경찰 10명
충고 야박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인
쌍용자동차에서는 해고된
220명이 자살 또는 병으로 사망했다.



두리반
이거야말로 힘들어
한숨쉬는곳



한진
김진숙은
내려와왔지만
아무것도
해결안된
곳



노조
권오홍 유성 재능 SJM



코트코텍
클로클텍
노동자 파업은
2000일이나
계속되어

병정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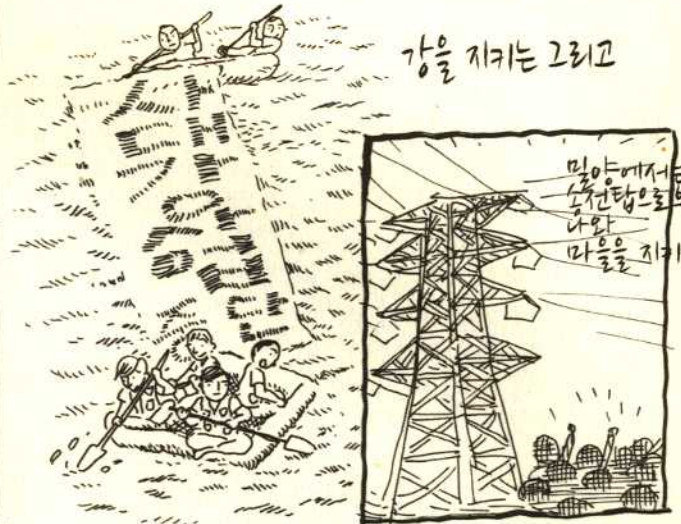
농성시작때
태어난
아기가
딸랑딸랑
유치원을
간다

정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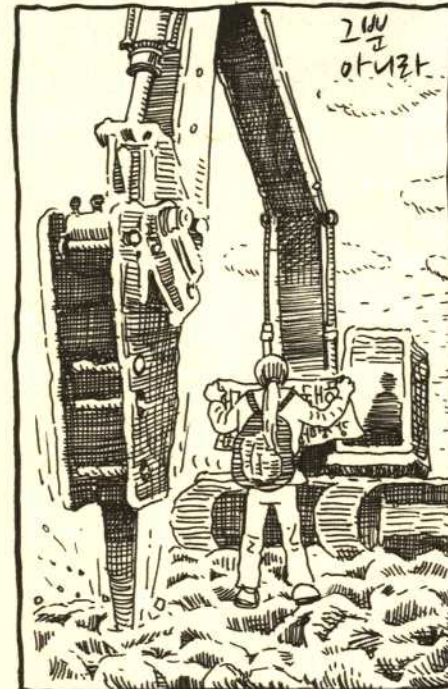
팔당에서는 땅을 지키는

우리는
지켜있습니다



강을 지키는 그리고

민아에서는
순천항으로부터
다와
마을을 지키는



그런
아니라

뇌동비리
치이현비리
내교도 사저문제
BPK KTX
전안하는
저는은하
공평과 언론사사장
이천고향 매각
한선교도청
민간인 사찰

여정권히 노성중인
재는 쓰리에김
큰을
큰은 보릿지
문레시아
한진 쌍차



저 멀리 강정에서는
평화를 지키는
길고 환로운 저항



가산출
1위 (OECD)
이런
동반이 쌍차
한번 더 돌아오심



양보할수 없는 인권의 가치. 늘 그 자리에 있는 다산

아날로그의 꿈, '인파속으로'

난다

높은 하늘, 은행 냄새, 약간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아주 완연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라디오방송 '인파속으로'입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도, 인터넷에 띄워지는 파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인파속으로'를 종종 들어주시던 분들을 위한 팬서비스라고나 할까요? 몇 가지 사연들과 함께 조금 특별한 라디오로 준비해보려 합니다. 매번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산 활동가들 사연만 쌓이는 우체통이었지만, 그래도 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빨간 우체통"! 가을빛 가득한 오늘 같은 날, 특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델리스파이스가 부릅니다. 저도 어른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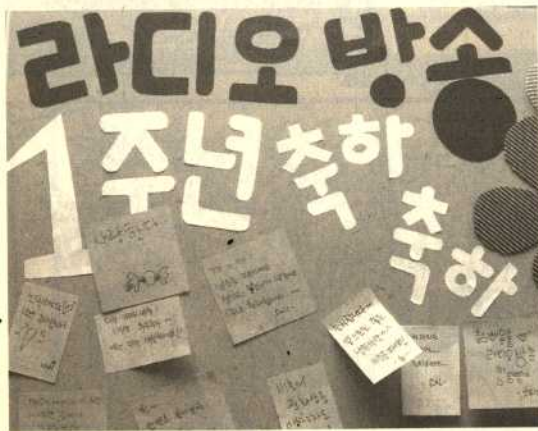


BGM, 델리스파이스 - 저도 어른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빨간 우체통 한 번 열어볼까요? 우와, 매교동에서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다른 시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네요. 경기도 수원외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가 다부진 세월들을 차곡차곡 쌓아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2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해 단단해지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볼게요. 저희 라디오방송 '인파속으로'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라디오방송 이야기를 좀 더 해 달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정작 라디오방송을 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라디오방송을 한 번 되감아볼까요?

다산인권센터 라디오방송 '인파속으로'는 지난 2007년 처음 만들어졌지요. 웹진 <다산인권>의 한 꼭지로 시작되었고, 인터넷 라디오 방식으로 소소한 인권 이야기를 담고자 했지요. 당시에는 나름 새로운 시도였다고 합니다. '인파속으로'의 초대 DJ는 남은들! 다들 기억하시죠? 남은들의 <청소년 인권 고고성> 이후 난다가 이어 받았고, 남은들은 <남은들의 인권 가온길>이란 제목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DJ 푸른솔과 은총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발자취를 되짚어볼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장비' 이야기인데요, 참 여러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제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이 바로 '인파속으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녹음할 때 아주 묵직~한, 노래방 마이크랑 비슷하게 생긴 걸 사용했어요. 처음 이 마이크를 봤을 땐 아주 콩닥콩닥 했답니다. 마이크 하나만으로 뭔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마이크가 아주 예민한 녀석이어서 숨소리 하나까지 다 녹음되는 거예요. 거기다 잘못 건드리면 잡음도 많이 섞이고요. 편집을 망친 일도 많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각자 가지고 있는 녹음기나 mp3 기기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매번 녹음할 때마다 조그만 기계 하나 들고 가서 대본을 읽는 장면이 떠올려지나요?(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날로그적이라 싶으면서도 그 나름의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수원 지동의 못골시장 방송실에서! 제법 제대로 갖춰진 녹음실에서! 덕분에 보이는 라디오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지금 저희 라디오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꽃다지가 부릅니다, 노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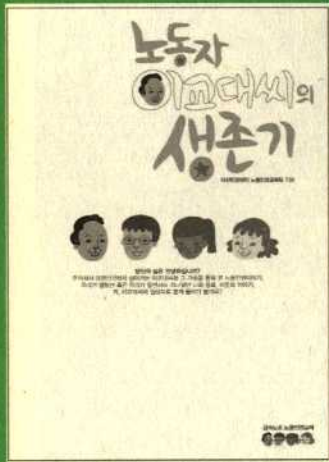
BGM, 꽃다지 - 노래의 꿈

'인파속으로'의 장수 코너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인권은 방울방울"이죠. 맞추셨어요? 우와 짹짹~ "인권은 방울방울"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 인권을 발견하는 코너인데요, 그 날 그 날 작가와 디제이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 주제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요. 한때 이 <인권은 방울방울>과 웹진 다산인권의 <한 잔의 인권>의 글 몇 편을 모아 책으로 엮어보는 작업도 진행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산인권센터 매체 팀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여러분께 한 잔에 담긴, 방울방울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인권 이야기가 담긴, 그런 작은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인파속으로'의 몇 년 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하지만 라디오 방송의 발자취는 여기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동안 인파속으로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인권센터 식구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노래, 들으며 인사 전합니다. 유리상자의 웃어요!

BGM, 유리상자 - 웃어요

난다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출간소식



노동자 눈에 비친 세상이야기,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팀/전국금속노동조합 / 2011. 6. 25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지만, 공장 밖만 나가면 소비자, 시민으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동자 정체성만으로 권리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 다양한 노동과 삶의 문제를 담기에 노동권이라는 그릇은 너무 작다. 그래서 노동인권이다.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 중 -

금속노조의 제안으로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팀에서 금속노조 현장교재 시리즈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노동권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만남을 통해 노동자의 삶, 시민으로서의 노동자, 다양한 정체성의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이교대' 씨는 대기업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 남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만, 어느새 꿈보다 일이 우선시 되었고 가족에게는 '아빠' 이기보다 '현금인출기' 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됩니다.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공장에 매달려 주변을 둘러볼 겨를조차 없는 이 시대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완소남(완전 소외된 남자) 이교대 씨의 일상과 그의 주변을 배회하는 유령들(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의 이야기는 책 속의 가상 스토리 같지만 이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노동인권 교재로서 처음 출간한 책이라 욕심만큼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요? 거짓수만 많은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찬 반찬으로 가득 찬 노동인권 교재를 또 펴낼 날이 오길 바라며, '노동자 이교대 씨의 생존기' 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슴 저미는 김장 이야기, 사람꽃을 만나다.

〈사람꽃을 만나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희망김장 기획단/ 2012. 5. 9

“이 책이 부디 '희망김장' 의 따뜻함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자의 삶과 이야기와 웃음과 눈물로 버무려진 또 다른 '희망김장' 이 됐으면 합니다. 희망김장을 통해 만났던 수많은 이들. 지금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싸우는 이들. 희망을 나는 당신들이 바로 사람꽃입니다.”

- 사람꽃을 만나다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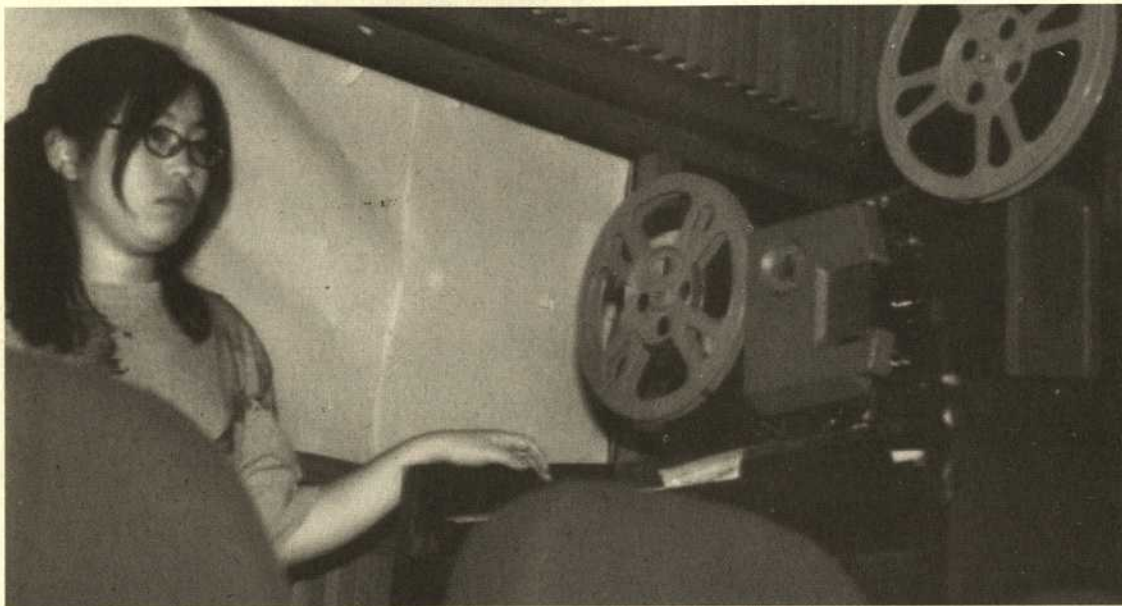
2011년 경기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의 '희망김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희망김장을 준비하면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희망김장 후기를 엮어 '사람꽃을 만나다'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왜 싸우냐' 는 질문에 갈 데가 없다고 대답하는 이들, 고기를 구워 관리자들에게 냄새를 피우는 투쟁을 펼치는 발칙한 이들, 해고자 가족이 처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많아도 아스팔트 바닥 위에 피어난 밟그레한 사람의 얼굴, 바로 그 꽃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투쟁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복직의 희망과 평온한 일상을 소망하는 소박한 이들의 꿈, 그들의 잔잔하지만 마음 저린 이야기가 책으로 펼쳐집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는 책, 얼어붙은 이 시대를 녹이며, 사람임을 외치고 있는 거리의 수많은 사람꽃들과 그들에게 연대의 날개로 찾아온 나비와 벌들을 위한 책, '사람꽃을 만나다' 를 만나보세요.

부활을 꿈꾸는 전설의 수원인권영화제

최성규



다산인권센터는 스무 살이 되는 동안 총 열한 번의 인권영화제를 치러냈다. 1996년 제1회 인권영화제를 시작으로 2005년 제9.5회(역대 상영작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을 엄선해 상영한 회고전), 그리고 2006년 제10회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장장 11년간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관객을 초대해 상영하는 공식행사 이외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작은 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산인권센터 활동과 함께 해왔다.

수원인권영화제 공식 선정작 총 228편,
Total Runing Time 12,508분,
제작 국가 : 한국, 미국, 벨기에, 필리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호주, 불가리아, 과테말라, 대만, 캐나다, 일본,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칠레, 영국, 프랑스, 베네주엘라, 독일, 스페인, 아이티...

'표현의 자유 쟁취'와 '대안 영상물의 발굴', '인권 의식 확산'의 목적 아래 시작된 인권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었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전회 무료상영을 지켜왔고, 검열과 감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전 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영화제이기도 하다.

1996년 1회부터 3회까지 서울과 연계해 진행되는 동안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한 사건은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사전 심의제 거부 등의 혐의로 서울인권영화제 서준식 대표 구속, 수원에서는 권용택 준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긴장 속에서 상영을 준비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상영장을 지



켜야 했다. 그렇게 싸워서 확보한 상영관도 오래 가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상영 등급 분류를 요구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때문에 길거리에서 상영을 결의한지 올해로 5년째다.

지역 영화제 사정도 마찬가지다. 광주인권영화제의 경우 미디어센터 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 현수막의 붉은 색이 노인, 어린이들에게 선정적이고 이념적인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상영을 거부했던 사례도 있다. 수원인권영화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직접 행동이 있었다.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는 경기문화재단의 편협한 문화적 잣대를 비판하며 지원금 전액을 거부하고 규탄 행동을 벌였던 사건과 함께 기억된다. 경기 민연권강좌 프로그램 강사진의 이념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였다.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행사를 방해했던 사건에 대해 수원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관련 기금을 전액 반납하고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독립적 체제로 결의, 이후 길거리 상영관 '찾아가는 작은 인권영화제'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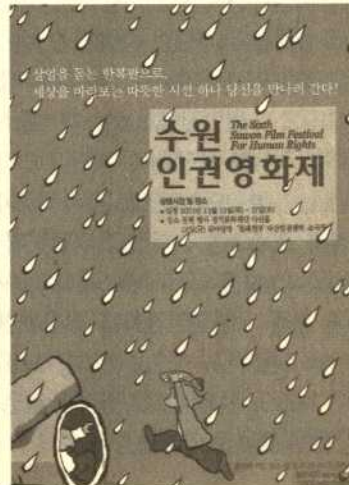
인력, 후원, 인프라 등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도 수원 인권영화제가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힘이었다. 서너 명의 적은 인원으로 산적한 인권이슈와 급박한 현안에 대응하던 다산 활동가들은 해마다 시즌이 되면 작품 섭외, 단체 조직, 프로그램 기획 및 코디, 영화 상영 등 엄청난 양의 실무를 도맡아야 했다. 지역 단체,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수원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그 해답이었다. 영화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였고 힘이었다.

이건 몰랐지? 배꼽 잡는 실수 퍼레이드

물론 실수도 연발이다. VHS 테잎 이외에는 구경도 못했던 활동가들이 상영 직전 DV라는 디지털 신기술(?)을 요구한 감독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사건, 되지도 않는 영어 실력으로 해외 작품을 직접 섭외했지만 영어 자막이었다는 걸 이를 전에 확인, 구사일생으로 번역 능력자를 만나 밤새 타이핑해 입모양에 맞춰 Enter를 눌러야 했던 해프닝 등은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억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여년의 영화제. 긴 시간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베타리(후원회원)로 든든한 힘이 되었다. 많지 않은 관객 사이에서 무겁고 아프지만 한 영화를 전일 전회 관람하고 다산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린 무서운 내공의 청소년, 빈 상영관에서 영화를 기다리던 노부부, 영화 내내 눈물을 흘리다가 소리 없이 후원 신청서를 써놓고 가버린 누군가도 있다. 그렇게 다산인권센터 20년의 한 권에서 영화를 밝혀왔던 수원인권영화제. 그 10여 년 속에는 수백 편의 영화가 있었고, 영화를 지켜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보다 많았던 시간이었다.

- 제1회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 제2회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
- 제3회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 제4회 [야만을 넘어 인권과 평화의 21세기를 위해]
- 제5회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 엿보기]
- 제6회 [살얼음 걷는 한복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하나 당신을 만나러 간다!]
- 제7회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 제8회 [차별도 전쟁도 없는 세상, '평화'의 자리가 당신의 좌석번호입니다]
- 제9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록]
- 제10회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 하는 것]



수원인권영화제는 제10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재정, 인력문제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들게 마련한 자리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 인권을 외치는 모든 싸움의 현장이 영화가 아닌가. 그 현장에 활동가들이 있는 한 영화는 '현재상영중'이라는 생각이다. 상영관을 폐쇄하면 거리에서 쓰고 거리에서 막히면 스크린을 뚫고 나와 사람들을 만났던 인권영화제. 다시 10년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수원인권영화제를 기대해 볼만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회 슬로건은 생각해 둔 게 있다.

제11회 [영화는 빛이다. 빛은 막힌 곳에서 그대로 빛날 뿐이다]

쿨? ^^

최성규 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그 사람
스브 살,
인권은
즐겁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스무 살 청춘, 당신들을 닮고 싶습니다.

아이구

안녕, DS님

(DS님은 다산인권센터가 아니라, 센터에서 활동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입니다.)

짜짜짜. 스무 살이 된 DS님. 살아오면서 매 순간 참 녹록치 않았겠다 싶어요. 남들이 느낄 뿌듯함 만큼이나 말이에요. 고단함과 자긍심. DS님들의 일상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또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넘실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소중한 권리를 알리고 쟁취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던 소중한 과정 하나하나에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권쟁이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장하네요, 멋지고요, 닮고 싶어요, 좋아요

DS님을 보았고 만났죠. 광화문 네거리 명박산성 앞에서. 대추리를 지키기 위한 지붕 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몸부림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거리에서. 신동 철거 현장에서. 생협 만들

기와 참여예산 만들기 모임에서. 수원역 앞 수원촛불에서. 지역운동포럼 마당에서. 부산과 평택 희망버스와 희망텐트에서. 정리하고 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북콘서트 현장에서. 노동인권 등 인권교육 강좌에서. 제주 강정 구럼비 바닷가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시청 로비에서. 무수히 많은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만두를 빚고 먹는 사무실에서. 참 많이 보고 만났어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소중한 걸음을 마다하지 않아왔던 DS님, 자랑스러워요. 내딛는 걸음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서 좋은 DS님, 고마워요.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중단 없이 당차게 밀고나가는 똑심 좋은 DS님, 장하네요. 조직과 이념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담은 실천 의제를 중시하는 DS님, 멋지고요. 자신들의 생각, 말은 물론이고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 DS님, 닮고 싶어요. 자신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DS님, 좋아요. 제가 DS님 마니아냐고요? 아닙니다. 그저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대끼며 함께 살아갈 동지로 말예요.

나름 멋진 스무 살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곱씹어 보면 당연하다 싶기도 해요. 1992년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딱딱한 자본 세상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죠. 한미 FTA 체결로 이어지는 자본의 무한자율을 위한 혹독한 세상의 연속이었어요.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스스로의 자유를 팔 것까지 강요당하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DS님은 힘들고 고되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당차고 멋진 스무살의 DS님으로 성장한 거구요. 참 좋아요.

더 많은 이들이 'DS님 되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등이 대통령이었던 20년, 쉽지만은 않았겠어요. 후안무치하고 모진 것들을 만나 굴하지 않고 한 걸 같이 해온 활동과 운영이 큰 버팀목이었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20년이 늘 한 걸 같지만은 않았겠지만, '바로 지금 여기'를 주목하면서 부단한 실천을 면면히 이어왔던 그 한걸 같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요.

그럼에도 '누가'와 '어떻게'에 대한 물음은 앞으로 불혹의 나이가 되기까지 DS님이 직면할 과제일 듯해요. '누가'와 '어떻게'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에 분명하지만, 여전히 DS님들 내부의 다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만지고 보듬는 일상의 힘겨루기 혹은 힘 나누기가 더욱 더 필요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DS님만의 몫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산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DS님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고민은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해 나가다가 보면 되겠지'로는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느낌. 운동은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세대를 이어나갈 더 많은 이들이 'DS님 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기 위한 TFT가 필요한 것은 아닐런지요.

앞으로 보낼 스무 해 동안도 더 많은 DS님들과 어깨 걸고 어울려들더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실 거죠? 불혹의 나이가 될 즈음엔 더 많아지고 복잡해질 유혹과 권력에 맞설 DS님으로 거듭나길 기원할게요. 함께 할 많은 날, 많은 경험, 많은 기억들을 온전하게 챙겨가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모쪼록 안녕. DS님.

아이구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 다시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랄라

(HR은 Human right의 약자로 다산과 함께해 준 모든 이들입니다.)

벌써 스무 살이 되었어. 작은 싹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눈과 비를 통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 온지도, 아직 올 것 같지 않은 봄을 기다리던 날들도, 우거진 나뭇잎을 통한 무성함도, 낙엽이 지던 쓸쓸한 거리의 가을도, 그리고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했던 겨울을 맞이한 지도 이제 스무 해. 나이만큼 커져버린 꿈들이 생겼고, 스무 해 동안 함께 해온 일들도 늘었지.

아직 작은 아이였을 때 나는 그저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이 되길 꿈꿨어. 세상의 풍파에 마음 아픈 이들과, 지쳐 쓰러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거라 믿었어. 하지만 한해, 한해 자라날수록 내 꿈은 커져갔어. 이 세상 아주 작은 아픔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응원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내가 커져가는 만큼, 나의 꿈도, 나와 맞닿아 있는 세상도 넓어져만 갔지. 그렇게 스무 살의 나는 마음도 키도 훌쩍 자라나 버렸어. 어렸을 적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어쩌면 더 지금보다 나이가 들게 된다면 나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결국엔 밀동밖에 남지 않아 황량할 지라도, 나의 밀동에 누군가 앉아서 긴 걸음에 지친 발 쉬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면 족하다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내 마지막은 나무 밀동마저 땅속으로 사라져, 작은 풀뿌리 하나로 연명할지라도, 희망을 잃고 힘겨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이기만 하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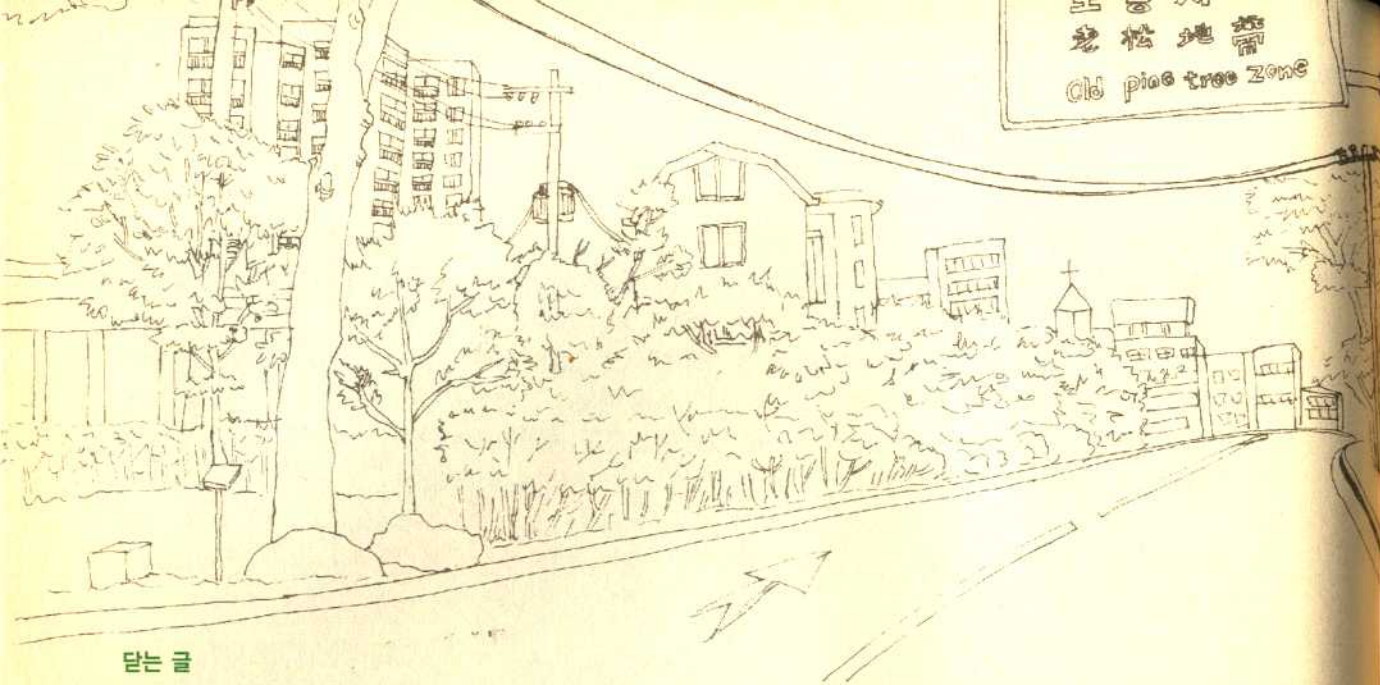
그리고 나의 지나온 과거와 언젠가 다가올 미래가 HR, 너와 함께일 거라는 것. 그게 더욱 중요한 것이겠지. 지난 20년 동안 나를 지켜봐준 내 곁에 있어준 HR. 니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한 것이라 생각해. 내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끌어 주었고, 내가 힘겨워 지쳐갈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었지. 이렇게 스무 해 동안 나를 지켜봐주고, 함께해 준 니가 있기에 외롭지 않았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야. 나의 스무 해에 니가 없다면 나는 아직도 작은 나무일 거야. 니가 있기에 내가 더 자라나고, 아름다리 그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스무 해 동안 니가 나를 벗 삼아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것처럼 말이야. 니가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 치일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나무 그늘이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나무 그늘이 없을 땐, 그저 너의 곁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내가 되어줄게. 어둡컴컴한 길, 그 길을 조용히 뒤따르는 가로등처럼. 니가 가는 그 길에 작은 빛으로나마 함께 하는 내가 되어줄게.

너와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한 당부

세상은 갈수록 공공 얼어붙고 있어. 무언가 사람냄새가 나지 않는 삭막한 곳으로 말이야.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죽음이 쉬어지고, 죽임이 쉬어졌지. 누군가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권력의 손아귀는 일상의 작은 행복에도 손을 뻗쳐 움푹달락하지 못하게 우리를 움켜쥐고 있지. 곳곳마다 감시의 눈은 우리를 뒤따르고, 불의에 저항하는 작은 외침마저 폭력으로 다스리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세상이 더욱 짙어져 버렸어. 스무 해 전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아틀란티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틀란티스를 꿈꾸는 너와 나는 이 세상에 불온한 존재로 발 붙이고 살고 있어. 그곳에 가고 싶어. 너와 내가 꿈꾸는 아틀란티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 냄새가 넘쳐 진동하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펴지는 세상 말이야. 아마도 내가 더 살아야 할 시대는 지금보다 더 엄혹하겠지. 하지만 내가 꿈꾸는 아틀란티스를 향해, 긴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 스무 살, 꽃다운 청춘. 내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첫 발을 다시 내딛으려 해.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하고 있는 너와 함께. 지금의 20년을 넘어 더 많은 세월,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지? 너와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말이야.

루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스무 살, 내가 내딛는 이 걸음은 고통의 나무가 우거진 삭막한 밀림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내딛는 첫 발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거라 믿고 싶어. 사람의 가치가 존중 받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아직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길. 그 한 걸음을 내 딛고 싶어. 나와 손잡고 함께 가겠니? 희망으로 가득한, 아직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첫걸음을 말이야.

랄라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닫는 글

서른 넷, 시작

박선희

나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서도 나는 서른넷의 내가 이곳 오사카에서 매일을 맞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인생은 이렇게 우연처럼 그러나 실은 정교하게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닌다.

낮선 이곳에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놀랍게도 나는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고작 두 시간도 채 못 되는 시간동안 바다를 하나 건너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곳과 저곳에서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물론 스미마생과 아리가토만 있으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곳은 그런 곳이다. 미안하거나 감사한 일 외에는 별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곳. 그러나 나는 미안하면서도 겸연쩍고 감사하면서도 속스러워하는 사람이다. 아리가토와 스미마생만으로는 온전한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표현할 수 없는 나는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그 사실이 또 나를 나 자체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나머지도 나를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

할 줄 아는 것도, 굳이 해야 할 것도 딱히 없는 지금의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오사카항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바람을 맞으며 그런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조심조심 살며시 지내고 있다. 처음으로 남편 없이 집 앞에 아이와 함께 외출을 나가며 집 앞 골목의 모습을, 모퉁이의 화분들을 눈여겨보았다. '커다란 파란 수국, 노끈으로 가지를 묶어둔 벤자민, 무라카미 상사라는 간판...' 몇 번이고 집 앞 골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들을 마음에 새기고 걸음을 떼었다. 아이가 먹을 바나나 한 개와 내가 마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놀이터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온 그 짧은 외출, 10분 정도 되었을까. 왔던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가며 눈에는 익지만 익숙하지 않은 골목의 화분들을 보고 느낀 그 안도감이 오히려 내가 정말 낮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언젠가 사는 일이 모두 피로하게 느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낮선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코는 뾰족한 행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란 그런 것이었다. 은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낯선 공기 속에서 맛보는 자유로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낭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연한 꿈이었을 뿐이니까.

정작 오사카에서의 생활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렸을 때 막연히 생각하던 근사하고 낭만적인 시간들의 총집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현실에 대해 꿈같은 환상을 키워가기에는 좀 많은 나이다. 생활은 어디서나 생활일 뿐이다. 실제로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곳에서의 나의 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이고 다섯 살 난 여자 아이의 엄마이니까.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의 아침을 함께 반갑게 맞이해주고 밥을 먹고 이불을 개고 방바닥을 닦고 빨래를 해서 널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퍼즐을 하거나 동요를 부르거나 책을 읽거나 레고를 맞추며 아이와 놀고 있다. 그곳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낮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둘 뿐이라는 것이다. 매일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지만 우리는 아직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누군가와 말을 섞고 마음을 나누기엔 말도 용기도 부족하다. 그래도 다행히 눈빛과 미소를 나누며 사는 건 잊지 않고 있다.

낯선 곳에서 불현듯 발견하는 웃음과 희망

내가 간혹 마음이 짙한 건 아이 때문이다.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이들이 많은 놀이터엘 가도 어쩐지 입을 꼭 다물고 그네 타는 일에만 열중한다.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엿보인다. 일부러 더 크게 "지호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지만 아이는 어쩐지 말수가 줄어들었다. 미끄럼을 타려고 하다가도 아이들이 여럿 몰려 있으면 밑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른 곳으로 발을 돌린다. 아마도 낯선 말들 사이에서 어린 마음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꺾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엄마니까 그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게 된다. 어쩌면 지호는 첫 성장통을 이곳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좀 더 용기 있고 따뜻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지호의 성장을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엄마 말이다.

아직은 적응을 하는 중이라 지호도 나도 마음속의 부침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총집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의 사이사이, 낭만은 자주 모습을 바꿔가며 선물처럼 찾아온다. 저녁 후의 가벼운 산책길에 골목을 울리는 자전거 소리, 어느 집 앞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 화분으로 이루어진 작은 정원, 어릴 적 신나게 뛰어놀던 곳과 꼭 닮은 동네 놀이터, 방향을 바꿔가며 자주 불어오는 바람, 앞치마를 두르고 가만가만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의 옆모습, 장기판 하나에 모인 훈수 두는 일곱 할아버지의 목소리, 동네 작은 선물집에서 번져 나오는 노란 불빛.

사소한 낭만적 장면들이 순간순간 마음을 밝혀주고 웃음을 선물한다. 특히나 이곳은 골목의 그림이 살아있는 곳이다.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 어느 곳으로 접어들든 소박하고 단정한 인상을 한 골목이 반겨준다. 동네의 아주 작고 후미진 골목까지도 자신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하다.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나는 또 이곳에서 무엇이 되어갈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다시 나를 이루어갈 생각이다. 그 과정에 번거로움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이 끼어들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또 설레는 반가움, 반짝이는 희망, 따뜻한 이해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이다. 아침이 설레는 이유다.

박선희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이며, 현재 일본 오사카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물 일곱. 그리고 마흔 둘. 다산인권센터가 스무해를 사는 동안의 16년 정도를 함께 보냈다. 꽃처럼 이뻐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꽃보다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거칠고 야만스럽고 아프다. 고통의 세월을 담았지만 또한 행복했던 스무해. 백서에 담긴 이야기들이다. 저항했기에 행복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스무살,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이기를. - 박진

스무 살, 나는 도서관 대신 민주광장을 드나드는 대학생이었다. 서른 살, 나는 기자의 명성보다 노동조합의 위상을 고민하는 노동자였다. 마흔 살, 나는 '정부미' 이되 '정부미' 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권현장을 떠돌았다. 내가 걸어온 길이 다산의 길과 다르지 않다고 믿기에 나는 다산의 친구가 되었다. 인권을 밥벌이로 여기는 소시민으로서 다산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한다. 마흔 넷, 나는 또 하나의 짓궂은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며 시대와의 불화를 즐긴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육성철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묵은 사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진들을 고르고 골라 꺼내는 일이었다. 그 오랜 사진첩을 몇 번이나 뒤적거렸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얼굴부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사람, 다산이 찾아가고 머물렀던 공간들. 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한 사람의 스무살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축하의 역사가 담겨있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연애를 하고, 생일을 축하하고, 손으로 V자를 그린 옛뎨 얼굴이 한장 한장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다산의 스무살은 축하라기보다는 아픔의 역사다. 사람을 찍은 사진에 사건의 이름을 붙이고, 웃는 사진보다 아프고 굳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과 거리에서 급하게 쓰여진 피켓, 기자 한명 찾아오지 않는 기자회견에서 홀로 앉아 태워 날리는 담배 연기 같은 거다. 다 같이 즐겁게 웃으며 활동하는 사진이 필요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지 않은 활동가가 수많은 인권의 현장에 다 같이 가서 웃는 일은 적어도 다산의 사진첩에서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꼬깃꼬깃 숨겨진 사진을 찾아 며칠 밤을 보내는 일이었다. 찾았어! 환하게 웃고 있는 활동가들을 발견할 때마다 생각한다. 고마워. 웃어줘서. 그럴 때마다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수고해 준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했다는 생각을 한다. 다산과 함께 했던 누군가의 사진을 찾아, 그 때 그 사건을 찾아 또 20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들여다보면서 찾았다! 하는 일.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조용히 인사를 하는 시간. 소중한 작업에 함께하게 되어 행복했다. 찬바람이 제법 쌀쌀해지는 늦가을에 햇팩을 선물 받은 느낌이다. 끝내 신지 못한 사진들이 떠오른다. 차마 공개하기엔 부끄러운 누구 누구의 굴욕 사진들. 이제 나 건들면 안돼^^ - 최성규

20년 전 내가 철없던 12살 아이였을 때, 나의 시공간과는 다른 곳에서 다산인권센터가 태어났다. 나와 다산의 20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이 사회의 사건 어딘가에서 마주쳤을 것이고, 이 사회의 아픔 한 곳을 함께 나눴을 것이다. 20년 동안 나의 삶 어딘가에 기억되는 사건들과 함께 했다. 다산. 다산에서 활동한지 일년이 조금 안된 초짜 활동가인 내가 다산 20년 백서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20년 전 사진을 꺼내보듯 다산의 20년 전 사진을 꺼내보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설렘이었다. 못웃었던 20년 전의 사진들과 기록, 사회의 아픔과 슬픔, 그늘진 곳에 늘 함께 있었던 곳. 앞으로 다산이 나아갈 20년은 희망과 설렘만이 가득하길. - 랄라

대학 OT때 "철의 노동자" 팔뚝질로 인권운동에 말뚝 박게된 이,
등록금 투쟁 때 식발한 선배를 흠모, 예뻐 받으려고 운동판에 뛰어든 이,
(그 선배는 삼성에, 그녀는 이 판에...)
촛불 집회 갔다가 마이크 잡은 박진이 놀러오라기에 보험모집인인줄 알고 다산을 찾았다는 이,
그런 이들이 모인 곳,
내가 다산을 좋아하는 이유,
스무살 편집에 작지만 힘을 보탠 이유! - 정미현

그 사람 스무살,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지금, 인권하고 계세요?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 황상기씨,
우리를 처음 만난 날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라면,
유미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꺼예요..."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세계일류는
거짓입니다.

삼성 노동자들의 인권 찾기,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20주년 백서

다산인권센터의 빛바람이 되어주세요
031-213-2105 www.rights.or.kr

